

하나님의 말씀

죄와 용서 1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목차

타락과 원죄.....	5
8566 창조와 과정과 존재들의 타락.....	5
8880 사랑의 힘을 거절하는 것은 죄이다.....	7
8921 하나님은 사랑이다. 죄에 대한 질문.....	10
7136 원죄와 구속사역의 의미.....	11
8806 구속사역을 이해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기 위해 원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13
원죄 - 인간의 타락.....	15
1447 유전된 죄. 자유롭게 되는 일.....	15
5800 인간의 창조. 인간의 타락.....	16
5967 유전된 죄.....	18
9005 아담이 실패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21
9006 왜 우리가 아담의 죄를 감당해야 하는가?.....	23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속죄.....	26
8504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속죄를 요구한다.....	26
3278 죄책감. 하나님의 긍휼. 보상.....	27
6513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속죄.....	29
8864 하나님은 속죄하지 않고 죄를 용서할 수 없다.....	30
9010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	32
사람들의 죄.....	35
2059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 죄. 묵임.....	35
3293 죄. 의지. 기도.....	36
4791 행하지 않은 죄. 후회. 저세상에서의 변화.....	37
5181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하는 죄. 죄의 고백과 용서.....	38
6071 죄는 사랑을 행하지 않는 일이다.....	39
4853 죄가 도를 넘어서는 일.....	40
영을 거스르는 죄.....	42
4053 영을 향한 죄.....	42
4617 성령을 거스르는 죄 "영을 거스르는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43
7725 영에 대항하는 죄.....	45
4039 사람들의 연약함. 죄. 사랑.....	46

창조의 과정과 존재들의 타락.

B.D. No. 8566

1963년 7월 22일

내가 너희가 진리에 합당한 지식을 얻기를 갈망하는 것을 본다면 내가 아주 기뻐하며 너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을 믿으라. 왜냐면 나로부터 단지 빛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빛은 어두움을 비추인다. 그러나 너희가 빛이 충만하게 될 때까지 그래서 너희가 다시 비추어 줄 수 있을 때까지 너희에게 비추어 줘야만 하는 아직 빛이 없는 영역에 너희는 거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없는 영역인 너희에 관한 설명을 받기를 원하면, 너희는 나로부터 온 빛의 비추임을 받아들일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비추어 줄 수 있다. 나는 너희를 다시 서서히 깨달음의 상태로 들어가게 할 수 있고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지식을 줄 수 있다. 너희 안이 빛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너희의 마지막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런 지식은 단지 나 자신만이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 내가 창조한 너희에게 줄 수 있다. 너희는 나 자신으로부터 생성되어 나왔다. 내 사랑의 힘이 나 자신으로부터 내 외부로 나와 상응하는 자립적인 존재인 피조물을 나 자신의 축소물로 창조했다.

나는 이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나와 같이 창조하고 역사할 수 있었다. 그들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이로써 나를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았다. 그들은 나에게 신실하게 복종했고 넘치게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한때 축복되었던 영들의 나라에 관해 너희 사람들은 적게 알거나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때 내가 내 형상을 통해 나 자신을 깨닫기를 원하였을 때 이 나라를 창조 했다.

내가 내 사랑을 부여할 수 있는 그릇을 창조한 것이다. 내 끝없는 사랑이 나 자신을 선물 해주기를 원한 것이 이 사랑이 그들의 온전함 가운데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을 준 같은 형상을 가진 존재에게 흘러 들어 가기를 원한 것이 영적인 존재를 창조한 이유였다. 나는 기쁨을 위해 성품을 가진 존재인 거주자들을 가진 영적인 세계를 창조했다. 나는 그들을 가장 놀라운 형태의 창조물들로 생명으로 불러 일으켰고 내가 그들에게 이런 축복을 부여주어서 존재들의 축복된 상태를 내가 기뻐했다. 내 근본 요소였고 내 근본 요소인 내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이런 영의 세계는 조화 가운데 모든 존재가 그들의 창조주요 유지자인 나와 가장 긴밀하게 연합 된 가운데 있었다.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이런 존재들은 그들의 뜻과 그들의 사랑이 나와 똑 같았다. 왜냐면 나 자신이 모든 온전함으로 나로부터 첫 번째로 창조해낸 존재가 깊은 사랑으로 나에게 복종했고 항상 내 능력을 사용해 자신의 의지로 생명으로 불러 일으킨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며 제한이 없는 축복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 뜻이었다.

왜냐면 이 존재들이 나를 위하는 사랑은 같은 방향을 가진 의지를 갖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에서는 어떤 것도 조화되지 못한 것이 없었다. 내 의지에 대항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 이 세상은 제한이 없는 축복된 세상이었다. 왜냐면 모든 성품을 가진 존재들이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해 있었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창조할 수 있었다.

내 사랑의 힘이 모든 내 피조물에게 비추어지는 동안에는 이것이 내 의지였다. 그러나 이런 온전한 상태는 지속되지 못했다. 왜냐면 나는 성품을 가진 존재들을 내 의지로 묶어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각각의 존재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닮은 표시로 자유의지를 주었다.

이런 자유의지를 첫 번째로 창조된 존재인 루시퍼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다. 그럴지라도 루시퍼는 자유의지로 나 자신과 같은 것을 원할 수 있었다. 그랬다면 그는 제한이 없는 축복된 존재였을 것이고 영원히 그렇게 남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잘못 사용했고 이것을 반대로 사용해 결과적으로 너희 사람들의 이성을 통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영적인 혁명을 가져왔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이런 한때 일어났던 영적인 혁명의 산물이다.

내가 말씀을 통해 계속하여 교류를 했던 첫 번째로 창조된 존재인 루시퍼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내 말을 잘못되게 해석할 수 있는 있었다. 그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그는 자신의 생각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다. 그는 영원한 질서의 법칙을 벗어날 수 있었고 전적으로 잘못 된 개념을 만들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자기 자신 안에 자신에게 속한 존재들에게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생각의 혼동을 일으켰다.

그는 자신의 잘못 된 생각을 자신의 의지와 내 능력을 사용함으로써 생성된 존재들에게 전해주었다. 나를 대적하는 반항이 일반적으로 일어났다. 존재들은 나에게 저항했다. 그들은 내 사랑의 빛의 능력을 더 이상 저항을 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고 이로써 연약하게 되고 빛이 없게 되었다. 그들은 영원한 질서의 법칙에 대항하며 거절했다. 그들의 생각은 자신의 길을 갔다.

믿을 수 없는 혼란이 원래 창조된 영들의 무리 가운데 일어났고 이제 그들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이로써 셀 수 없이 많은 존재들이 나로부터 타락해 나가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을 방해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가 모든 온전함으로 나로부터 생성되어 나온 그럴지라도 항상 단지 내 작품이었던 창조된 존재들에게 줄 수 있는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는 한 길을 보았다. 나로부터 타락한 후에 그들은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녀로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왜냐면 자유의지만이 자녀로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가능하게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존재는 그러나 전적으로 나와 내 권세와 내 의지에 의존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전적으로 내 의지 안에서 행할 것이다. 왜냐면 존재들은 자신의 온전함을 통해 전적으로 내 의지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 너희는 이런 나에게 돌아오는 과정에 가운데 있는 것이다. 너희에게 선한 의지가 있으면, 너희에게 내 영원한 사랑의 빛이 다시 비추질 수 있다.

너희는 너희가 한때 소유했던 그러나 자유의지로 버렸던 이런 모든 깨달음을 다시 얻을 수 있다. 나는 너희에게 이런 지식을 전하는 일보다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내 큰 사랑을 알려주는 일보다 너희가 빛과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변화되어 너희가 다시 너희의 원래 상태처럼 되게 하는 일보다 이로써 너희가 다시 제한이 없는 축복에 도달하게 하기 위하는 일보다 너희가 너희의 목표에 도달해 내 올바른 자녀로서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인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일보다 더 큰 기쁨을 알지 못한다.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에게 향하고 영원히 향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한때 그의 사랑으로부터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의 힘을 거절하는 것은 죄이다

B.D. No. 8880

1964년 11월 8일

만약에 너희가 위로부터 음성을 들으면, 이는 사람들을 공황히 여기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다가가는 내 끝없는 사랑의 증거이다. 이 사랑은 너에게 항상 계속하여 주어진다. 왜냐면 너희는 내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비록 너희가 자유의지로 내 대적자를 따라 깊은 곳까지 갈지만 그러나 너희의 원래의 성품은 사랑이다.

너희가 다시 너희의 원래의 성품으로 변화될 때까지 나는 쉬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제 위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 음성을 통해 단지 선한 세력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나는 항상 단지 너희를 사랑으로 양육하기 위해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알려주기 위해 애를 쓰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의 변화를 이루게 하는 올바른 길을 가기 때문이다.

위로부터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한 출처를 너희는 의심할 필요 없다. 이는 단지 선한 내용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류로부터 자유로워야만 한다. 왜냐면 "영원한 진리 자신"이 너희를 가르치기 때문이다. 너희는 진리가 너희에게 잘못 된 가르침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적인 신뢰 가운데 너희 자신을 맡길 수 있다.

종말의 때에 이런 보장은 아주 필요하다. 왜냐면 심지어 내 진리의 전달자에게도 전달 내용이 진리인지 의심에 빠지게 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자신이 내 빛이 전달자들을 오류로부터 보호함을 아는 것으로 너희에게 충분하다. 왜냐면 만약에 나 자신이 아니라면, 누가 순수한 진리라는 보장을 너희에게 해줄 수 있겠느냐? 나는 모든 사람의 진리를 향한 의지와 갈망을 안다.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대적자가 특별히 빛을 전하려는 너희에게 역사함을 말한다. 그는 이를 방해하려고 하고 이를 위해 사람들의 심장에 그들이 받은 것의 진리성에 의심을 심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한다.

그러나 내 역사도 항상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나는 항상 분명하게 대적자가 이미 침범한 곳에서 오류를 밝혀 낼 것이다. 왜냐면 그의 목표는 너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진지하게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진지하게 자신 스스로 순수한 진리를 열망하는지 점검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더 이상 속지 않게 될 것이다. 그는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스스로 자신을 오류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창조의 순간은 나뿐만 아니라 내 빛의 전달자에게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된 일이었다. 왜냐면 그의 의지와 내 사랑의 힘의 작품은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게 만들어 졌고 이것들은 우리들을 말할 수 없이 행복하게 했고 빛의 전달자의 사랑은 항상 더욱 빛나게 나를 향해 타올랐다. 왜냐면 그들 안에 같은 창조의 능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창조물로 인해 기뻐하고 마찬가지로 영적인 창조하는 일을 할 수 있었고 이 일을 통해 그들의 축복을 측량할 수 없이 높일 수 있었다

창조된 존재에게는 어떤 부족함도 없이 모두 다 나와 같은 형상으로 생성되어 나왔으며 그들이 내 사랑의 빛으로 비추어진 대로 창조하며 조성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내가 전제할 때에 그들이 사랑의 힘을 받는 것을 거절하였을 때 그들의 일이 저하됐다는 것을 너희는 선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그들은 그들의 빛과 그들의 깨달음을 잃어버려서 그들의 생각은 혼돈되게 되었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되었고 자신 안에서 굳어졌다.

그러나 나로부터 한때 나온 능력이었기 때문에 내가 여러 종류의 창조물로 변경을 시켰다. 이 과정은 내가 너희에게 이미 자주 설명을 했다. 너희는 이를 가장 순수한 진리로 영접할 수 있다. 너희는 내 사랑의 힘을 거절하는 것이 나를 대적하는 죄였다는 것을 생각할 것 없이 영접할 수 있다. 왜냐면 그들에게 가장 빛나는 빛을 비추어 줬기 때문에 그들은 전적으로 그들의 거절로 나타나는 영향력의 범위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빛의 전달자뿐만 아니라 타락한 존재들을 타락하게 했다는 또는 타락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모든 설명들을 오류로 깨닫게 만들 것이다. 모든 존재들은 내 사랑의 힘의 흐름을 거절할 때 까지는 내 의지 아래서 역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적인 실체는 굳어지게 되었다. 내가 한때 존재로 발출시킨 내 능력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해야만 했다.

입자로 분해가 되어 작은 가장 작은 입자가 되어 이 입자들로부터 창조물이 생성되게 되었다. 이 때부터 존재들은 모든 반발심과 대항해 싸워야 했다. 왜냐면 이들은 자신을 다시 성장시키기 위해 이를 극복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타락하지 않은 존재들이 하는 일은 나로부터 그에게 주어지는 능력을 활용하는데 있었다. 이 존재들은 가장 밝은 빛의 상태에 있었고 이로써 깨달음 가운데 있어 단지 내 의지 외에는 어떤 다른 것도 사용하지 않았다. 존재들이 나에게 진실되게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내 의지에 따라 역사하고 창조했다.

존재들이 나를 떠나 갈 때에 그들은 창조하고 조성하는 능력을 잃게 되었다. 그들은 굳어지게 되었고 행함이 없이 남게 되었다. 이로써 창조물들이 생성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는 영원 전부터 루시퍼와 존재들이 타락할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들을 막지 않았다. 그럴지라도 나는 이 타락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왜냐면 내가 빛의 전달자 루시퍼에게 같은 모든 능력을 주었고 이 능력을 줄이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자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나 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나에게 전적으로 대항하는 세계인 두 번째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 존재들이 나를 떠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었다. 그가 그리고 나중에 그의 추종자들이 내 사랑의 힘의 흐름에 자신을 담음으로써 이 모든 일은 단지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내 사랑의 힘을 거절하는 것이 본질적인 죄이다. 왜냐면 그들은 나 자신으로 출발되어 나왔다는 전적인 깨달음 가운데 나 자신에게 대적했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나를 대적하는 의지 안에서 존재의 생각하는 능력이 나타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은 나에게서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 사랑의 힘을 거절하는 것은 이런 잘못 된 의지의 방향을 설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왜냐면 이것은 영을 어둡게 하는 것이고 영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루시퍼는 내 반대 극이 되었고 모든 악한 생각들의 근원이 그 자신이었고 존재들에게 이 생각을 전달할 수 있었다. 왜냐면 그들이 나에게 의식적으로 사랑을 거절하는 순간부터 대적자는 이 존재들에 대한 전적인 권세를 가졌기 때문이다. 루시퍼는 내가 존재들로부터 그의 권세를 빼앗기 위해 그리고 귀환을 위한 과정으로 인도하기 위해 창조물을 만들 때까지 그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제 이 존재들은 그들이 인간으로써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을 의식하는 상태에서 그의 모든 잘못 된 생각을 버리고 그의 의지를 전적으로 변화시켜서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처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고통의 길을 오랫동안 가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탄적인 것을 버려야만 한다. 그리고 자유의지 가운데 신적인 것을 추구해야만 한다. 이것 만으로도 이미 악이 내 안에서 근원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를 신적으로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신적이라는 의미는 빛과 어두움이 동시에 같이 존재할 수 없고 내 안에 사랑과 미움이 동시에 같이 존재할 수 없고 요약해서 내가 내 안의 모든 상반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단지 선한 것을 의미한다.

자유의지가 나를 위할 것인지 또는 내 대적자를 위할 것인지 실제로 결정할 수 있다. 그가 내 대적자가 되었을 때에 이미 악했고 나에게 대적하는 모든 것을 창조 했다. 나는 나 자신과 같은 권세가 있었고 그는 단지 시작점을 가지고 있다. 내 대적자가 사용하는 가장 악한 속임수는 너희들로 하여금 모든 악한 것들의 출처가 내 안에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내 사랑의 힘을 거절하는 것이 본질적인 죄였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왜냐면 이를 통해 존재에게 혼동의 상태가 왔기 때문이다. 이 상태 가운데 그들은 내 의지에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을 거절했고 이로써 분해가 되어 묶임을 받고 모든 종류의 창조물이 된 것이다.

나로부터 발산되어 나온 능력은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온전한 존재로 변화되는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자유의지 가운데 이 능력을 다시 요청해야만 하는 것이 영원한 법칙이기 때문이다. 인간으로 육신을 있는 동안에 타락한 자 안에 놓여진 루시퍼의 생각이 원인이 된 죄와 싸워야만 한다는 것이 내 사랑에 의해서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야 하는 하내 과정이 되었다.

이로써 사탄은 원하지 않게 이런 귀환의 역사에 참여해 일하게 되었고 나는 이를 영원으로부터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절대로 그를 내 반대의 극으로 정하지 않았다. 왜냐면 그도 자유로운 존재로써 모든 온전함 가운데 나로부터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나로 하여금 너희를 진리 안에서 인도하게 하라. 왜냐면 내가 너희가 나를 향한 길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너희에게 설명해줄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모든 오류는 잘못 된 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언젠가 너희의 성장을 보장하는 순수한 진리를 깨닫기까지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되기 때문이다. 비록 너희가 가장 악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로부터 한번이라도 떠난다고 믿으면, 너희는 잘못 된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이다.

나는 내 넘치는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인간으로써 이 땅의 삶을 살았고 이로써 너희가 어떤 권세에 묶여 있는 지를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에게 다가오는 일을 쉽게 형벌의 심판으로 여기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 자신들을 위해 다시 심판하고 즉 신적인 질서에서 벗어난 것들을 새롭게 정리해야만 하는 일을 행할 수밖에 없음을 생각하지 않는다.

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들인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보기에 파괴시키며 멸망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항상 단지 너희에 대한 내 큰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가 다가오는 일들을 어떻게 보느냐는 결국에 가서 너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너희는 언젠가는 이를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 스스로 이런 운명을 준비하고 있다. 너희 스스로 강제적으로 종말이 오게 하고 있다. 너희 스스로 나로부터 멀리 떠나가서 언젠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너희를 다시 묶는 방법 외에는 나에게 더 이상 다른 수단이 없다.

너희가 이제 내 대적자에게 헌신하는 것이 내 사랑을 줄이게 할 수 없다. 왜냐면 언젠가는 나는 너희를 그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희가 새로운 파문을 감으로써 너희에 대한 아무 권세가 그에게 없게 되는 것도 이제 이에 속한 경우가 될 것이다. 단지 영이 깨어난 자들만이 내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내 영원한 구원계획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질문한다: 너희가 속죄하는데 측량할 수 없이 어려운 이런 죄악에 책임이 나 자신에게 있다고 아직도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이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한 구원시대 이상을 거쳐야만 함을 믿을 수 있느냐? 너희는 나 자신이 근원이 된 죄를 속죄하게 위해 너희들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영원히 영원까지 너희에게 부여 주는 내 사랑을 부정해야만 한다.

너희가 나 자신에 의해 너희 안에 악을 심어주었다는 생각을 너희 안에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너희는 오류 가운데 거하게 되고 나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다 왜냐면 이런 생각은 모순된 것이고 깨어난 영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대적자의 가장 해가 되는 작품인 이런 생각이 이에 대해 즉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들이 심장으로 영접했다.

즉 내가 항상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남기 때문에 내가 모든 악을 경멸하고 절대로 스스로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악을 불러 일으키지 않음을 그들은 생각

해 보지 않는다. 이런 오류가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때까지 많은 말을 해야만 한다. 왜냐면 내 대적자가 이미 깊이 역사했고 그가 성공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항상 인간의 이성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했고 이성은 악이 나로부터 출발되어 나왔다는 설명 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는 사람은 만약에 내가 원래부터 영적인 존재들의 타락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필요하게 만든 것을 원죄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한다.

나는 존재들을 온전하게 창조했고 자유의지와 선과 악을 느끼는 느낌을 부여했다. 그러나 악은 내 대적자가 자신으로부터 악을 만들어 냈고 그리고 타락한 존재들도 악을 갈망했고 반면에 다른 존재들은 그들이 갈망을 선한 쪽으로 향했다. 나 자신이 존재의 의지가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 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 대적자의 권세는 커서 그가 모든 악한 성품들을 존재들에게 전가했다. 이로서 그 혼자 만이 이런 타락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존재들을 같이 책임이 있게 했다. 그들은 이 죄악으로부터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롭게 될 수가 있다. 왜냐면 타락은 가장 밝은 깨달음 가운데 나 자신을 대적하고 내 사랑에 대적하는 죄로써 이 죄는 존재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타락에 내가 기여했다는 것은 이미 있을 수가 없고 모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아멘

원죄와 구속사역의 의미.

B.D. No. 7136

1958년 6월 1일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너희가 항상 또 다시 기억할 것이다. 나는 이 땅의 너희 사람들과 저세상의 아직 구속을 받지 못한 모든 혼들에게 항상 또 다시 구속 역사를 기억하게 할 것이다. 또는 너희가 아직 구속 역사를 알지 못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에 관한 지식을 전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언젠가 축복에 도달하기 원하면, 깨달음이 없이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의 이 땅의 삶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친 인간 예수를 알지라도 너희가 인간 예수가 죄악 된 인류를 위해 실행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의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희에게 "그가 인류를 죄로부터 구속했다." 라고 말하면, 그러나 너희가 연관관계를 찾지 못하면, 너희는 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은 너희에게 단지 말 자체로 남는다. 너희가 인간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너희는 너희 모두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할지라도 왜 인류가 죄악 되었다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너희가 인간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원인인 원죄를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사람들의 죄악이 원죄로부터 온 것이라 할지라도 이 원죄는 크기면에서 사람들의 죄악성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이 이 땅에서 짓는 죄는 죄값을 치루기 위해 비록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가 이 땅이나 또는 저세상에서 언젠가 죄값을 치를 수 있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이나 저세상에서 원죄의 대가를 치르는 일은 불가능하다. 왜냐면 이 원죄는 자신

이 이미 온전하지 못하게 된 존재가 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온전한 가운데 있는 존재가 그에게 깨달음의 빛이 부족하지 않은 존재가 나를 능가할 수 있다는 느낌이 자신을 다스리게 만든 존재가 그러므로 그들의 빛과 능력의 총만함이 거만하게 만든 존재가 범했기 때문이다. 존재 자신이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없다.

왜냐면 이 죄는 측량할 수 없이 크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영원에 영원의 기간이라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죄를 통해 존재들이 가장 깊고도 깊은 곳으로 타락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빛과 능력을 잃었다. 그들은 동시에 자신을 반대로 바꾸었다. 그들은 모든 신적인 성품을 잃은 대신에 모든 악한 성품과 충동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영적인 성분이 전적으로 굳어져서 그들의 존재를 더 이상 의식할 수 없게 될 때까지 내 대적자가 되었다.

나는 이제 이런 굳어진 영적인 존재들을 형체 안으로 파문했다. 다시 말해 나는 존재를 셀 수 없이 많은 영적인 입자들로 분해하여 이 입자들로 셀 수 없이 많은 창조의 작품을 생성시켰다.

창조의 작품들은 내 사랑과 권세와 지혜가 단지 이런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한 것이다. 왜냐면 존재는 축복 되게 정함을 받았고 이 축복은 단지 나에게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창조물을 거치는 과정은 실제 측량할 수 없는 죄를 속죄하는 역사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의무의 단계에서 의지가 묵임을 받은 가운데 이뤄진다. 그러므로 이 죄에 대한 죄값을 치렀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존재가 언젠가 다시 자유의지로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길 갈망하는 상태에 도달해야만 한다.

이 상태에 있는 존재에게 그가 지었던 죄에 대한 깨달음이 그러나 이런 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깨달음이 주어질 수 있다. 존재는 이 길이 십자가를 향한 길임을 알아야만 한다. 존재는 원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이 단지 하나님의 구세주와 그의 구속사역을 인정하는 일을 통해 가능함을 알아야만 한다. 그는 육체의 죽음 후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실제 고향은 빛의 나라의 영접을 받을 수 있기 위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십자가를 향한 길을 가야만 함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나 저세상에서도 내 공허히 여기는 사랑이 아직 깊은 곳에서 고통 당하는 혼들에게 다가간다.

저세상에 있는 혼들도 내 구속사역을 알게 된다. 혼들은 저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에게 향하는 길을 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한때 거부했던,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나 자신이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일을 통해 이 땅에서 도달할 수 있었던 높은 온전한 정도에 더 이상 도달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구속사역의 이런 큰 의미를 알아야만 한다. 너희는 예수 이름을 단지 높은 도덕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한번 살았던 사람의 이름으로 일컬어서는 안 된다.

그가 이 땅에 거한 목적은 큰 의미가 있는 사명이었다. 너희는 너희 안에 선명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 이 사명을 헤아려 봐야 한다. 왜냐면 너희가 이 땅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될지는 너희의 진정한 고향인 나라가 너희를 다시 영접하게 될지는 너희의 깨달음과 너희의 선한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아멘

구속사역을 이해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기 위해
원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B.D. No. 8806
1964년 5월 26일

너희 인간들에게 원죄로 인한 타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단지 인간적인 죄에 대해 드러진 속죄의 역사로 여기고 있다. 실제 너희는 구속사역을 반박한다. 왜냐면 너희가 믿는 대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를 마지막 최소 단위까지 지불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의 죄가 너희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써 지은 것만이라면 이런 관점은 이해할만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죄는 영들이 나로부터 떠나간 큰 원죄에 관한 것이고 이 죄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죄이고 너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모든 창조 이유이고 내가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된 이유이다. 나로부터 창조된 존재들이 타락하게 된 원인은 그들이 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 자신을 예수 안에서 볼 수 있게 했다.

누구든지 단지 첫 번째 사람의 죄로 인한 타락만을 적용하면, 그에게는 이 죄를 위해 구세주가 필요하게 된 것이 믿을만 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항상 인류가 범하지 않은 죄 때문에 인류에게 형벌을 가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할 것이다. 사람들이 지은 죄들은 실제로 내 사랑에 대항해 어긴 것들으로써 큰 원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자신의 빛이 없는 상태 가운데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죄는 모든 것을 설명한다. 사람들이 영들의 타락의 과정을 모르는 동안에는 이 죄를 사하기 위해 나에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를 위해 이 죄를 자신에게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죽으신 하나님의 구세주를 믿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전파자의 일로 나타낼지라도 하나님의 구세주를 부인하는 모든 가르침은 그리고 구속의 원칙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버려야만 한다.

단지 나 자신만이 인간 예수 안에서 완성할 수 있었던 원죄로부터의 구속에 관한 것이다. 이로써 내가 그 안에서 인간이 된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왜냐면 나 자신이 내 어떤 피조물에게도 피조물을 소멸되지 않게 하면서 나타내 보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가 나를 볼 수 있게 상상할 수 있게 만들려면, 이는 너희와 같은 형체 안에서 일어나야만 한다. 이 형체가 너희에게는 바로 인간 예수이다. 볼 수 있는 세계가 창조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존재들이 나를 떠나 타락한 과정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항상 지속되는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다. 그러면 타락하지 않은 원래의 영의 하나인 인류의 구원자, 너희가 모든 것을 창조하는 능력에 대한 어떤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 자신이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한 분의 구세주를 인정해야만 하고 할 수 있다. 그분은 모든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고 너희 인간을 위해 너희 죄의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 용서가 갑작스럽게 주어질 수 없고 너희 자신이 이를 얻기 위해 부탁해야만 한다.

왜냐면 타락이 자유의지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게 돌아가는 것도 자유의지 가운데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완성에 이르기 위해 진지하게 애를 쓰는 사람들은 원죄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써 지은 죄도 용서를 받는다.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을 용서가 확실하다는 것을 의심할 필요 없다.

그러나 예수를 단지 구세주로 거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인간으로 떠오른 선생으로 보는 잘못 된 가르침 가운데 내가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그에게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의 죄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단지 한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만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 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그 안에서 인간이 된 예수이다.

아멘

유전된 죄. 자유롭게 되는 일.

B.D. No. 1447

1940년 6월 1일

사람 자신이 최종적으로 자유롭게 되도록 가장 상상할 수 없는 기회들이 사람에게 제공이 된다. 그러나 그는 자신 안에서 항상 죄를 향한 갈망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항하고 자유롭게 되는 일을 추구하기 위해, 의지가 특별하게 강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자신 안의 욕망과 싸워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런 욕망은 대부분 영이 자유롭게 되는 일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향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항하는 일이 사람에게 공적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싸움에 성공하기 위해, 실제 사람의 능력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의지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게 만들고, 이 능력이 이제 그에게 주어진다. 그러므로 영이 자유롭게 되는 일이 성공하려면, 의지가 항상 죄에 대항해야만 한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모든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을 격리시키는 일이다.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났다. 다시 말해 사람의 혼은 자신이 동인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 어두움을 추구하고, 빛에 대항해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았던 영적인 본질적인 입자들이 모인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 그들이 묶임을 받은 상태에 빠지게 했다. 그러므로 혼은 아직 항상 어떤 자유롭지 못하고, 묶임을 받았고, 자신의 의지를 통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자신을 먼저 자유롭게 만들어야 한다. 그는 먼저 죄에 대항해야만 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모든 것과 싸워야만 한다.

혼은 단지 자신의 구원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오래 전부터 하나님을 대항해 하나님과 싸우던 의지를 포기하고, 최종적으로 자신을 생성되게 한 분과 연합이 되려는 추구를 하기 위해 육신을 입은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태어날 때에 한 때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즉 이제 유전된 죄라는 말은 이해할 수 있는 말이고, 사람은 이제 자신 안에 거하는 빛을 대적하는 내적 충동에 대항하는 싸움을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어두운 상태를 줄이거나 또는 해결하기 위해, 항상 싸워야만 할 것이다. 이 싸움에 자신의 모든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자신의 의지가 진지하게 일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을 갈망하면,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이 그에게 제공된다.

하나님이 지원하는 것은 의지이다.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의지를 가졌던 죄로 인한 결과인 묶임의 상태로부터 그를 남김없이 자유롭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그에게 자신의 능력을 부여준다. 모든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시작할 때 아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지를 자신 안에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땅을 떠날 때에는 이런 의지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롭게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고, 이는 존재가 생각할 수 없게 긴 기간 동안 지속되었던 포로의 상태로부터 최종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하나님의 말씀 - 15/46

타락한 영적인 존재가 높이 성장하기 위해 끝없이 긴 시간이 필요했다. 내 각각의 창조물들도 역시 끝없이 긴 시간이 필요했고, 동시에 항상 더 성숙한 영적인 존재가 자신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 내 창조물 안에서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이 성장해야만 했다. 항상 또 다시 새로운 형체가 창조되었고, 이런 형체에게 항상 또 다시 사명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이 땅의 창조물은 순간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고, 모든 성장정도를 가진 영적인 존재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걸형체를 찾을 때까지 무한하게 긴 시간이 소요됐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가 항상 성숙하게 되는 일이 항상 또 다시 영적인 존재를 받아드릴 새로운 창조물을 필요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가 의무의 단계에 있는 동안에 내가 창조하는 일은 가장 깊이 타락한 영적인 존재를 위해 성숙할 장소로서 이 땅을 창조하는 일을 의미했다. 영적인 존재가 성장해야 할 장소에서 존재가 한때 잘못 사용하는 자유의지를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에게 돌려줘야 하는 성장을 이뤄야 했다.

그러나 이제 성숙하게 된 영적인 존재를 위한 형체가 창조돼야만 하고, 이로써 창조된 형체 안에서 성숙하게 된 영적인 존재가 자유의지의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돼야 한다. 이런 창조물이 인간이고, 인간이 자유의지에 더하여 이성과 이해력을 받고, 생각할 수 있고, 자신을 의식할 수 있고, 사람들이 함께 사는 일이 의지를 시험하는 일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의 이웃과 언어를 통해 교통할 수 있는 점에서 인간은 이 전에 생성된 창조물과는 다르다.

인간의 걸 형체는 이미 의무 상태의 마지막 단계에 있고, 무수히 많은 성숙한 혼의 입자들을 받아드리도록 정함을 받았다. 그러나 인간의 걸 형체의 생명체는 아직 의무의 단계에서 자연의 법칙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했고 그러므로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없다. 생명체는 아주 적게 생각할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끝없이 긴 성장기간에 걸쳐 성장해 온 영적인 존재들을 모으는 역할을 했고, 생명체는 마찬가지로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위한 내 지혜와 사랑이 형성한 창조의 작품이다. 그러나 단지 자유의지와 이성과 자신을 의식하는 의식을 소유한 인간을 비로소 생명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피조물을 영화시키는 계획이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되었고, 이제 이런 존재들인 사람들이 내 가르침을 받는 일이 필요했다. 그들은 이런 내 가르침대로 그들의 생각할 능력과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자유의지를 활용해야 하고, 그들은 이제 이 땅에서 그들의 자유의지로 살고 창조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내 가르침들과 내 뜻을 거역하고, 그들이 올라선 깊은 곳으로 다시 떨어질 수도 있었다.

나는 인간을 창조했고, 어느 정도의 영적인 성장정도에 도달한 영적인 존재에게 내 지혜와 내 사랑에 합당하게 걸형체를 부여했고 또한 인간이 이제 성취시켜야만 하는 과제를 부여했다. 무수히 많은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이제 혼으로써 형체에게 생명을 부여한 영적인 존재가 걸 형체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걸형체가 비로소 생명체가 되었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는 끊임없이 활동하는 힘이고, 실제 예비 단계인 끝없이 긴 성장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는 묶여 있었고, 제한이 없는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지막 걸 형체인 인간 안에서 영적

인 존재가 다시 행할 수 있고, 자신이 소유한 힘을 확장시킬 수 있고, 나와 의 연합을 통해 자신의 힘을 무한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

첫 번째 사람들에게 측량할 수 없게 내 힘이 제공됐고, 그들은 특별하게 힘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 땅의 시험의 삶이 그들이 완전히 영화된 상태로 세상의 곁형체를 벗고, 진정한 자녀로서 그들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모든 피조물에게 요구하는 의지의 시험을 거쳐야만 했다. 최초의 인간이 이런 시험을 통과했다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이 쉽게 최종 목표에 도달하게 되었을 것이다.

(1953년 11월 1일) 최초의 사람들이 나를 떠남으로 인해 온전하지 못하게 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 안에 존재를 창조했고, 그들 자신을 피조물로 인식한 존재들은 나 자신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각하는 힘과 그들의 자유의지를 통해 내 뜻을 깨닫고 수행할 수 있었다. 나는 나와 떨어진 거리가 멀지라도 이전의 묶임을 받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인, 나를 이해할 수 있고, 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하게 할 수 있는 존재를 창조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한때 타락한 원래의 영을 자신 안에 지닌 최초의 이 땅의 창조물이었다. 인간은 이제 원래 영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도록 도와야 하고, 또한 자신의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이로써 그가 다시 자유로운 영적인 존재로서 나와 영원이 하나가 된 가운데 나와 함께 창조하고 역사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이런 일이 처음으로 창조된 인간의 과제였고, 이 과제는 종말의 때까지, 타락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완전히 영화되기까지, 모든 인간의 과제로 머문다.

첫 번째 사람이 통과해야 하는 의지의 시험은 특별히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다. 그러나 시험을 위해 내 대적자에게 그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권리를 부여해야만 했고, 인간이 이 영향에 굴복했다. 그는 두 번째로 나를 떠났고, 이 일은 이 땅의 첫 번째 타락이었고, 비록 사람들이 한때 나를 떠난 영의 타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을지라도 인류는 이 땅의 첫 번째 타락을 알았다. 그러나 영의 타락이 비로소 모든 것을 설명한다. 최초의 사람이 나에게 의해 첫 번째로 존재하게 된 힘과 빛을 전적으로 소유해야만 하는 창조물이었다면, 타락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로부터 온전하지 못한 것이 나올 수 없고 그러면 어떤 대적하는 세력도 그에게 역사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이유를 영들의 타락에서 찾아야만 한다. 따라서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인간의 혼에게서 이유를 찾아야만 한다. 혼이 시험에서 합격할 수는 있었지만 합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사람은 실제 이성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또한 자신의 혼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댓가를 지불해야만 했고, 내 대적자가 인간으로 육신을 입은 영적인 존재에 대한 권세를 갖게 되었다. 이런 일은 모든 사람이 내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을 위해 싸움과 고통이 함께 하는 고된 이 땅의 삶의 과정을 가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목표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타락으로 연약해진 인류를 돕기 위해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를 자원하여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사람이 그의 모든 후손들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다리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타락했기 때문에 인류는 구세주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영의 나라로 향하는 다리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오랫동안 사탄의 속박 아래 머물러야만 했다.

(1953년 11월 2일) 내가 첫번째로 창조한 존재인 루시퍼에게 요구한 의지의 결정은 절대로 계명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고, 이는 오히려 자신의 의지를 한 방향으로 향하게 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였다. 그가 가진 의지의 방향은 유일하게 권력과 혼자서 지배권을 가지려는 갈망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나에게서 생성되었다는 것을 실제 의식했지만, 그가 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서 다스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나를 자신의 출처로 깨달았지만, 나를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내가 이런 의지를 존재 안에 넣어주지 않았고, 존재가 스스로 내가 준 자유의지로 변화가 되었다. 이 점이 루시퍼의 첫 번째 타락과 첫 번째 사람의 타락 사이의 차이였다. 인간은 자신 안에 잘못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그가 어기지 말아야 할 계명을 주었고, 대적하는 영이 인간에게 역사하지 않았다면, 인간이 쉽게 계명을 지킬 수 있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아직 대적자의 일부였고, 인간이 타락을 불가능하게 만든 완벽함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적자가 인간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다.

완전하게 창조된 인간은 타락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즉 인간이 계명을 어길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왜냐면 인간 안의 온전한 영적인 존재가 모든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을 막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의 타락의 결과로 비로소 창조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둘러싸고 있는 걸 형태로 영적인 존재를 감싸지 않았을 것이다.

인간의 형체 안에 타락한 영적인 존재가 거하고 있고, 따라서 인간 아담은 이미 한때 지은 죄를 가지고 있었고, 그가 내 계명에 순종했다면, 그는 죄를 물리칠 수 있었고, 그가 유전된 죄짐을 갚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타락은 타락한 영적인 존재가 다시 나에게 돌아 오는 일을 끝없이 지연시켰지만, 그러나 인간 아담이 해야 할 내 의지를 전적으로 따르고, 이 땅에서 사랑의 삶을 통해 나와 다시 전적으로 연합하고, 힘과 빛을 전적으로 소유하는 일을 내가 주는 계명이 없이 행한, 인간 예수의 구속사역을 통해 타락한 영적인 존재가 다시 나에게 돌아 오는 일이 가능해졌다.

아멘

유전된 죄.

B.D. No. 5967

1954년 5월 29일

너희가 대답 받기 원하는 질문이 항상 너희 안에서 떠올라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가 나와 연결을 이루고, 너희가 긴밀한 기도를 드린 후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듣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설명해줄 수 있다. 이 가운데 너희가 영의 음성을 통한 내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한다면, 이제 떠오르는 생각을 내 응답으로 간주해야 한다. 너희의 갈망과 나를 향한 부름이 너희가 올바르게 생각하는 일을 보장한다. 그러나 내가 없이는 너희가 진리 안에 서지 못하게 될 것이고, 내가 없이는 너희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노력은 헛되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가 없

이는 너희가 많은 잘못된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의 세력들이 너희에게 잘못된 생각을 전할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진리의 제공자인 나를 제외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다음 말을 해줘야 한다: 너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한 동안에는 너희에게 항상 단지 비유를 통해 설명해줄 수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지혜의 끝 없는 깊이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 너희는 내 역사와 통치의 이유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온전하지 못함이 부족한 깨달음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의 이성의 능력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의 나라에서 내 사랑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면, 번개 같은 속도로 설명이 너희에게 임할 수 있다. 이 땅에서 너희는 비유를 통해 설명을 받아야만 하고, 단지 너희의 이해할 능력에 따라 너희에게 내 창조물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을 묘사해줄 수 있다. 그러므로 또한 영적인 과정들은 단지 이 땅의 과정을 통해 첫 번째 사람의 심장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땅의 과정은 단지 연약한 비유이다. 왜냐면 너희 자신의 영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에 묶여 있다. 왜냐면 너희가 이 전에 타락한 일을 통해 잃어버린 완전한 자유를 먼저 이 땅의 삶을 통해 다시 회복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 사람의 의지에 제한을 가했다. 왜냐면 내가 그들이 처음으로 한 권세 아래 종속되어 있고, 그들이 최종적으로 그들의 자유를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처음에는 나를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 일이 그들을 생성되게 한 나에게 반역한 첫 번째 죄이다. 단지 자유의지로 인정하는 일이 첫 번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내가 모든 창조물을 생성되게 했을 때 나는 나 자신을 인정하는 일에 도달하기를 원했다.

그러므로 최초의 사람들은 나를 실제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 그러나 깨닫도록 강요를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자유의지가 결정을 내려야만 했고, 자유의지가 "유혹" 가운데 자신을 다시 입증해야 했다. (1954년 5월 28일)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이 갈망하는 것으로 집중해야만 했고, 금지와 유혹이 동시에 자발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해야만 했다. 그러나 당연히 유혹은 약속으로 끌어드리려는 일과 연관되어야 하고, 그들이 이제 저항해야 한다.

금지과 유혹은 양측에서 나온 것이다. 왜냐면 타락한 존재들이 나에게 돌아오는 일과 내 대적자에게 머무는 일이기 때문이고, 내가 창조한 존재가 목표에 도달하거나 또는 깊은 곳으로 새롭게 타락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 안에 욕망이 주어져야만 하고, 사람에게도 또한 이런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야만 하거나 또는 훨씬 더 높은 목표이고 이 땅의 욕망을 성취시키는 일보다 천 배 이상의 가치가 있는 나와 함께 하는 영원한 축복을 위해 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야만 한다.

타락한 영적인 존재의 회복은 나와 내 대적자 사이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 대적자도 또한 영적인 존재들의 의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가져야만 한다. 대적자는 속이는 가짜 재물과 가짜 행복으로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과 영원히 축복된 삶을 잃게 한다. 나는 이런 유혹을 알았고 그러므로 내가 최초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죽음에 대한 경고와 함께 계명을 주었다. 이런 경고로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 사람 안의 모든 욕망을 억누르게 하기에 충분해야만 했다. 내 대적자는 내 경고와는 반대로 그들을 설득했고, 그들에게 생명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들은 나

를 최고의 권세로 깨달았지만 그러나 거짓을 따랐다. 이를 통해 그들은 세상에 죽음을 가져왔다.

그러나 무엇이 그들의 욕망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 그들이 욕망에 굴복하게 했는가? 그들은 낙원에서 축복된 삶을 살았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었고, 모든 것이 그들의 의지 아래 있었고, 그들은 전적인 힘과 권세를 가진 가운데 행복하게 느꼈다. 긴밀한 사랑은 또한 최초의 창조된 사람들을 연결시켰고, 이 사랑의 힘으로 그들은 이미 내 대적자의 속박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다. 이런 사랑이 나와 동역자에게 향한 동안에는 의지의 시험에 실패할 위험이 없었다.

그러나 내 대적자는 이런 사랑을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거짓 약속을 하면서 이런 사랑을 자기 사랑으로 바꾸었고, 이제 그들 스스로가 축복을 얻으려는 욕망을 불타오르게 했다. 그들의 사랑이 요구하고 이기적이고 낮은 차원의 사랑이 되었고, 이로써 그들이 자유롭게 돼야 하고, 그들이 그들의 욕망보다 내 계명을 더 높게 여겼더라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존재의 권세에게 그들 자신을 드렸다.

너희 사람들은 내가 첫 인간 부부를 축복하기 원했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라. 그러므로 첫 인간 부부가 죄를 지었다. 내 창조 계획을 따르는 어떤 일에도 죄가 없고, 법적인 질서를 따라 일어나는 일에 죄가 없고, 출산 과정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에 어긋날 수 없다. 그러나 생명을 잉태하려는 의지가 없이 감각의 만족시키는 일은 신적인 사랑의 역사가 아니라 내 대적자가 타오르게 한 자기 사랑이고, 사람들을 끌어 내려 전적으로 대적자의 권세 아래 빠지게 한다.

최초의 사람들이 이런 거짓 사랑의 희생양이 되었고, 이런 거짓 사랑이 죄였다. 이 죄는 스스로 자신을 높인 원죄를 다시 상기시켜 준다. 이 죄는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소유하기 원하는 죄이다. 이런 죄는 그들을 생성되게 한 자로부터 유전된 죄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통점이 없는 죄이다. (1954년 5월 29일)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 심장 안에 불씨로써 놓여 있고 가장 큰 화염으로 타오를 수 있다. 그러나 내 대적자의 목표였고 목표인 이런 사랑을 뒤집는 일을 내 대적자가 성공시켰다.

순수하고 신적인 것이 불순하게 되었고, 더 이상 "사랑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고 단지 욕심과 이기심과 자기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었다. 이런 사랑이 내 대적자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번식하는 일이 또한 수많은 혼들이 내 대적자에게 향하게 하는 수단이 되었다. 이런 일이, 만약에 새 생명이 잉태되는 일에 베푸는 신적인 사랑과 행복하게 되는 일이 최정점에 달해야 하는 번식하는 일이 내 축복 아래 일어났다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타락은 순수하지 못한 이기적인 사랑을 위한 순수한 신적인 사랑을 잃게 된 일이다.

사람 안의 하나님의 불씨는 사탄의 영향으로 꺼졌고 대신에 모든 고귀하고 순수한 것들을 희생시키는 불이 타올랐다. 감각이 자극을 받아 가장 높은 욕망이 되게 했다. 이런 일은 내 창조의 역사와 전혀 일치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 대적자와 내 피조물의 자유의지 때문에 방해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탄의 유혹에 저항하는 일이 여전히 개인의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로 인한 타락은 번식하는 일이 아니라 사탄이 자극하고 자유의지로 불을 붙인 그릇되고 최악된 사랑이었다. 신적인 의미에서 행복하게 하는 창조의 역사가 불결한 영들의 놀이로 변질되었다. 내 대적자가 나 자신이 내 축복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기 원했던 역사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 역사는 그들 안에 있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하기 위한 역사이고, 이로써 이제 이 사랑이 생성된 존재에게 흘러가야 하고, 이를 통해 항상 밝은 사랑의 빛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이 없이 나에게 돌아 오는 길을 찾고 짧은 시간 안에 사랑을 통해 구원받는 인류가 나오게 했을 역사이다. 왜냐면 사랑이 발산되는 곳에서 나를 깨달아야만 했기 때문이다.

최초의 인간은 이 의지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인간의 혼을 얻기 위해 내 대적자와 싸웠기 때문에, 대적자가 자신의 승리를 확보하기 위해 수단을 사용하는 일을 막을 수 없었다. 왜냐면 이 일이 완전한 자유의지로 내 피조물이 귀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피조물은 실패했고 모든 인류가 한 사람이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인류를 속죄하고 그들을 위해 다시 위로 향하는 길을 만들 때까지 더 이상 스스로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운명을 맞이했다.

그러나 사랑이 내 대적자와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왔고, 이 사랑은 나를 떠나 타락한 마지막 존재가 나에게 돌아올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담이 실패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B.D. No. 9005

1965년 7월 1일

나는 너희가 나에게 질문하는 모든 영적인 질문에 답변한다. 먼저 너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한곳은 내 뜻이 아님을 알아야만 한다. 너희는 진실로 너희의 의지가 묶여진 상태인 의무단계에서 보낸 기간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었음을 알아야만 한다. 왜냐면 이 기간은 끔찍하게 긴 시간으로서 너희가 다시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일이 진실로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가 자기의식을 가진 존재인 사람으로서 치러야 할 너희의 의지의 시험을 요구해야만 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너희는 단지 나에게 다시 복종하기만 하면 되었다. 너희는 이를 통해 너희가 한때에 나를 떠나 타락한 큰 죄를 해결할 수 있었다. 전에 사랑의 비추임을 거절했던, 너희는 단지 너희의 나에게 대한 사랑을 증명해야 했다.

그러므로 첫 사람들은 선하게 창조되었다. 그들은 사랑으로 나에게 복종했다. 왜냐면 내가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갖추어 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 땅을 주었다. 내가 모든 것들이 그의 다스림을 받게 했다. 그들은 나를 자신들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깨달았다. 그들은 내 창조의 권세의 영광스러운 작품들로 둘러 쌓여 있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다.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 나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했고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게 했고 그들 안에 악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나는 첫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줘야만 했다. 왜냐면 그들은 나로부터 창조된 원래 영들이고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로서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한때 자유의지로 나를 떠나 내 대적자를 깊은 곳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대적자도 그들에게 역사할 수 있는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다시 의지가 나를 따를지 그를 따를지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에게 쉬워야만 했던 의지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 이로써 인간으로 육신을 입기 전에 극복했던 모든 악한 충동들이 다시 깨어났다.

조상들이 이제 그들의 성품을 후손들에게 전해주었고 대적자의 족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이 항상 더욱 더 어려워졌다. 첫 사람이 어렵지 않은 시험에 합격했으면, 나는 그들이 이전에 지나왔던 끝 없이 긴 과정만으로 충분히 여겼을 것이다. 그들의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자유의지로 그들의 사랑을 다시 나에게 돌렸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이 땅의 삶을 단지 이 땅의 창조물들을 기뻐하기 위해 살았을 것이다. 그들은 모든 창조물들에게 좋은 영향력만을 끼쳐 이로써 창조물들도 인간으로 육신을 입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땅의 삶은 단지 영원한 생명을 위한 단지 전 단계였을 것이고 대적자의 권세는 꺾이게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첫 사람이 의식적으로 나에게 헌신함으로 대적자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롭게 되, 대적자는 더 이상 자신의 권세를 사용할 수 없고 자신 스스로 내 사랑에 복종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첫 사람에게 단지 자유의지로 다시 내 비추임을 허용하는 일만을 요구했다. 그랬다면 원죄는 사함을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단지 사랑이 속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를 짓는 일이 다시 반복되었다. 이 전에는 단지 창조물 안에 묵임을 받은 영적인 세계에만 미쳤던 것이 모든 인류에게 임했다. 첫 사람이 만약에 그의 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했으면, 쉽게 도달할 수 있었던 일이 이제 끝 없이 어렵게 되었다. 왜냐하면 모든 사탄적인 성품이 사람 안에 굳게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에 대항해 싸우는데 사람의 의지로는 모을 수 없는 큰 능력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사람의 실패를 깨달았을 때 자유의지로 자신을 제공한 빛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이제 필요하게 되었다. 그는 사랑에서 나온 자유의지로 이런 두 배의 죄를 나에게 속죄하기 위해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죽기를 자원했다. 나는 원초부터 이런 두 번째 타락이 실제 일어날 줄 알았다. 그러나 내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스러운 길을 가야만 하는 일을 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의지를 자유롭게 못하게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언젠가는 모든 존재를 다시 얻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천 년이 나에게서는 하루와 같기 때문에 너희들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축복된 영원한 삶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1965년 7월 1일), 너희가 언젠가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염려할 필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면 너희는 또한 최고로 온전한 존재가 되고 과거에 받은 모든 고통과 비교가 안 되는 세상적인 개념으로 측량할 수 없는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첫 사람이 타락한 후에 스스로 만드려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하고 내가 진실로 첫 부부에게 그들의 자유로운 의지의 결정을 쉽게 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주었음을 알아야만 하고 그들 안에 사랑이 강했으면, 그들이 성취시킬 수 있기에 쉬운 계명만을 내가 주었음을 알아야만 하고 그의 사랑만이 자신이 나에게 헌신하기로 결정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고 그리고 이 깊은 사랑이 모든 후손들에게도 임하게 됐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고 이 깊은 사랑이 모든 유혹가운데 대적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나 두 번째 타락은 일어났다.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적자와 공개적으로 싸우기 위해 이 땅에 임할 때까지 모든 후손들은 새롭게 짐을 지게 되었다. 왜냐면 대적자는 사람들을 항상 더 큰 사랑없음으로 몰아가면서 자신의 권세를 잘못 사용해 그들의 의지를 더욱 약하게 하여 사람들이 구속사역이 없이는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고 항상 더 깊은 흑암으로 떨어졌다. 나 자신이 이 역사에 경계선을 정했다. 나는 자신을 구원하도록 허용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

왜냐면 자유의지가 구속사역의 은혜를 다시 영접할 자세가 되어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구속사역은 인간의 의지와 반대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으로 의지 시험을 치르기 위해 창조물 안을 거치는 과정으로 실제 충분할 수 있었다. 왜냐면 모든 혼이 이런 고통스러운 의무단계를 통해 쉽게 유혹에 대적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대적자에게 그가 끔찍한 방법으로 최대한 사용하는 모든 혼에 대한 권세가 다시 주어졌다.

그러므로 대적자에 대항할 수 있기 위해 모든 능력을 갖춘 원초의 영이 첫 인간으로 선택을 받았다. 그러나 그가 어떤 결정을 하게 강요할 수 없었다. 그의 생각과 행동은 전적으로 자유롭게 남아야만 했다. 내 대적자가 이런 자유의지가 자기에게 향하게 만들려고 노력해 새롭게 타락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로써 영들이 나를 떠나는 죄를 다시 범했다. 그러나 대적자의 이런 권한을 빼앗을 수 없었다. 왜냐면 한때 타락이 자유의지로 이뤄 졌고 그들이 대적자를 깊은 곳까지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너희를 다시 가장 큰 고통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 다시 타락하기 원했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그를 막을 수 없었다. 왜냐면 그가 다시 그의 자유의지로 행했고 같은 자유의지로 언젠가는 다시 나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즉 언젠가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빠져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가 대적자와 싸우기 위해 인간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음으로 한때 그들이 떠났던, 그들의 아버지 집으로 그들의 영원한 본향으로 다시 돌아오려는 모든 자들을 대적자로부터 빼앗음으로 내 사랑 자체가 너희를 구속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 사랑이 전과 같이 다시 너희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너희를 아직 묶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원하면, 너희가 다시 나를 갈망하고 내가 영원히 너희를 더 이상 떠나지 않기 위해 나에게 너희를 다시 소유할 권리를 주면, 모든 고난은 끝이 날 것이다.

아멘

왜 우리가 아담의 죄를 감당해야 하는가?

B.D. No. 9006

1965년 7월 2일

순 순 진리가 너희에게 전해지게 되면, 너희의 모든 질문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순수한 진리는 단지 너희에게 올바르게 제공되어 되면, 아주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너희는 가장 밝은 깨달음의 상태에서 나로부터 타락이 일어났음을 안다. 모든 존재들이 그들의 타락에 대해 같은 책임이 있다. 그들이 대적자의 의지 아래 있으면서 나를 거역하게 그들에게 강요할 수 없었다.

내 사랑의 힘을 거절하는 것은 모든 존재들이 개인적인 일이었다. 죄를 짓게 한 것은 대적자에 빠지기 전의 타락할 당시의 자유의지였다. 그들은 스스로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고 의식적으로 대적자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제 대적자는 자신의 추종자들에 대한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

내가 타락해 일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능력을 다른 방법으로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창조물을 창조함으로써 권세를 그로부터 빼앗았다. 대적자는 자신의 추종자로부터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었다. 존재들이 인간으로서 자기의식을 다시 얻었을 때 비로소 그는 그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었다. 나는 그에게 이 권한을 줘야만 했다. 이 때문에 그도 이런 존재들을 유혹할 수 있었고 그는 모든 권모와 술수로 유혹했다.

그는 첫 사람에게서 만약에 그가 내 가벼운 계명에 순종하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 내 말에 대한 믿음을 빼앗는 것을 이해했다. 이 첫 사람 안에 아주 강한 영이 육신을 입고 있었다. 대적자는 쉽게 다시 그가 타락하게 하는 일에 도달했다. 하물며 어떤 영도 내 대적자의 같은 유혹의 술수에 빠졌다면, 대적자에게 저항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보다 더 사실에 가까운 것이 있느냐? 후손들이 첫 사람의 죄를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첫 사람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유혹에 대항했다면, 내가 나중에 인간 예수가 했던 것처럼 긍휼로 인해 똑 같이 행했을 것이라는 것에 관한 것이다:

첫 사람이 사랑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내가 나에게 헌신하면서 내 비추임을 다시 가능하게 만들어야 할 첫 사람의 저항하려는 능력에 만족하였을 것이라는 것이다. 첫 사람의 사랑의 의지 때문에 내가 죄를 용서해주었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이 땅의 인간으로 사는 삶의 길은 단지 나를 향한 사랑을 최고로 불타오르게 하는 역할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대적자는 첫 사람에 대한 자신의 권세를 증명했고 그의 권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 자신의 유혹하는 술수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존재들이 한때 자유의지로 그를 깊은 곳까지 따랐기 때문에 나는 그의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 너희는 이 사람들이 선조들의 죄를 감당해야 한다고 말할 수 없고 항상 모든 사람에게 유혹에 대항을 할지 결정할 자유가 있다. 그들은 나로부터 대항할 능력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이런 의지를 내가 축복하기 때문이다. 나는 절대로 이런 사람들을 대적자에게 맡겨두지 않을 것이다.

첫 사람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 땅의 삶의 과정을 쉽게 가게 도울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실패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 한 대적자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 하게 되었다. 그러나 도움을 구했으면 내가 보호할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의 이 땅의 삶은 훨씬 쉬웠을 것이다. 빛의 세계로부터 가르침이 전달될 수 있었던, 내 대적자가 이들에 대한 전적인 권한이 없었던 모든 원래의 영들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쉬운 이 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과 내 대적자의 유혹의 희생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과 대적자가 그들에 대한 전적인 권세를 가지신 못했다는 것들은 내가 모든 혼들을 도왔다는 그리고 계속 도울 것이라는 증거이다. 그들의 의지는 이미 나에게 복종하여 이들은 적은 죄짐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시작한다. 그들의 귀환의 길을 완주하게 하기 위해 은혜와 능력으로 차별이 없는 것이 아니게 혼들을 돌보아 준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나는 첫 사람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강한자였던 한때 타락했던 영을 대적을 하며 내 쉬운 계명을 지켰더라면, 그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 내 말을 더 믿었더라면, 그의 저항으로 대적자의 권세를 부수고 이 승리가 모든 타락한 영들에게 영향을 미치었을 것이 때문에 대적자는 더 이상 자기 추종자에게 역사할 수 없을 것이고 쉽게 갈 수 있었던 귀환의 길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야만 한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속죄를 요구한다.

B.D. No. 8504

1963년 5월 21일

나는 선하고 공의한 하나님이다. 내 피조물들에 대한 내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 나는 모두를 축복되게 하고 그들에게 최고의 행복을 전해주기 원한다. 왜냐면 사랑이 이렇게 하게 나를 재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가장 최고로 온전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영원한 내 질서 안에서 움직여야만 한다. 모든 내 온전함을 나타낼 수 있게 돼야만 한다.

그러므로 내 공의도 내 온전함을 증명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내 피조물들에게 증명하기 원하는 내 크고 넘치는 사랑에 제한을 가한다. 나는 죄를 범한 존재를 축복되게 할 수 없다. 왜냐면 이는 내 공의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사랑이 내 영원한 법칙에 의해 묶임을 받는다. 사랑은 단지 온전한 존재만을 축복할 수 있고 이 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할 수 없게 축복되게 만들 수 있다. 나는 실제로 죄를 지은 존재들이 자신의 죄에서 자유롭게 되게 도우면서 공의가 은혜를 허용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한 의지는 존재 자신에게서 나와야 한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의식해야만 하고 이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갈망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도움을 청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들의 의지와 반대로 그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수 없다. 나는 존재가 내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 스스로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고 내 공의를 만족시킬 때까지는 내 사랑으로 존재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

내 생명으로 부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은 나를 대적했다. 그들은 죄를 범하게 되었고 내 공의가 사랑이 이전과 같이 존재들을 측량할 수 없게 축복되게 역사할 수 있게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 끝없는 사랑에는 제한이 가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만약에 존재 스스로 전적으로 내 사랑의 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절이 바로 그들의 가장 큰 죄이고 이로써 내 공의를 만족시킬 능력이 없어 내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 존재들은 영원한 동안 내 사랑의 흐름에 영역에서 쫓겨났어야만 했다.

그렇지라도 존재들이 언젠가 다시 내 사랑의 비추임을 받아서 행복하게 될 수 있게 되려면 영원한 신적인 법칙에 따라 속죄는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런 구속사역을 인간 예수가 나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이웃들의 불행한 상태를 깨닫고 이를 자신의 사랑의 힘으로 해결하기를 원한 이웃들에 대한 사랑으로 완성했다.

이를 통해 내 공의는 만족 되었다. 내 사랑은 이제 다시 나타날 수 있게 되었고 나로부터 한 때 생성되어 나온 존재에게 사랑이 주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들에게 나 자신이 영원한 사랑으로써 그들에게 부어 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존재를 측량할 수 없이 행복하게 만드는 축복을 해줄 수 있게 되었다. 한때 나를 떠나간 죄가 범죄한 존재에 대한 내 사랑에 제한을 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왜냐면 나는 한 존재 의지와 반대로 그에게 사랑의 힘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그가 그의 저항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 온전한 상품의 속한 공의가 이를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내 온전함의 근거인 영원한 질서의 법칙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다시 내 사랑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전에 그의 죄짐이 해결돼야만 한다. 인간 예수는 이 법을 성취시켰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에 전적으로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의 모든 죄짐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한때 타락한 자들의 모든 죄짐을 해결하기 위해 나에게 큰 희생 제사를 드렸다. 나는 이런 희생의 제사를 영접했다. 나는 나를 떠났던 존재들이 그리고 사람들 자신이 짊어진 측량할 수 없는 죄에 대한 대가로 만족했다. 나는 인간이 예수의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속하기를 원해 드린 희생 제사를 받아들였다.

예수 안의 사랑이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이 사랑이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죄를 용서해 주었다. 그러나 죄사함은 내가 고난받을 능력이 있고 고난을 받을 의지가 있는 타락한 자들의 죄짐에 대한 대가로 측량할 수 없이 고통을 스스로 당한 한 사람의 형체 안에서 단지 완성시킬 수 있는 속죄를 행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로써 공의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대가가 지불되었다. 이제 내 사랑이 다시 역사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랑은 자신을 선물하고 피조물들을 측량할 수 없이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왜냐면 피조물들은 다시 죄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나와 다시 연합할 수 있게 되고 원초에 그랬던 것처럼 전적으로 내 사랑으로 비추어 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 사랑은 줄어들지 않았다. 내 사랑은 감소하지 않았다. 이 사랑은 무엇보다 한때 죄를 지었던 모든 존재들이 자신의 죄를 자유의지로 십자가 아래 내려 놓아서 이를 예수에게 전가해서 내 공의를 회피하지 않으면서 그럴지라도 이 존재들이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게 돕는다. 왜냐면 사랑 자신이 자기를 희생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왜냐면 한때 타락했던 사람들이 영원히 자신들의 죄짐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들에게 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선물해주길 원하는 축복을 줄 수 있기 위해 그들이 자신의 측량할 수 없는 죄짐으로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해 내가 공의한 하나님으로서 요구해야만 하는 속죄를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준비가 되어있는 예수 안의 사랑 자신이 희생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큰 죄에 대한 보상이 이전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왜냐면 내 온전함은 질서의 법칙을 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죄에 대한 속죄를 해야만 한다. 왜냐면 내 공의가 속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죄책감. 하나님의 긍휼. 보상.

B.D. No. 3278

1944년 10월 4일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축적된 죄짐이 인류를 짓누르고 있었다. 이런 일은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사는 이유와 창조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사람들이 단지 이해할 수 있다. 왜냐면 그들은 인간이 그의 죄를 때문에 창조물을 거치는 과정을 갖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원래 초기에 자신을 생성되게 한 하나님께 돌아

가기 위해 자신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가 이 땅의 사람들을 묶고, 하나님께 향하는 길을 막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극복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죄가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창조물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 이미 벗어났던 가장 깊은 곳으로 끌어내린다.

그리스도가 임하기 전에 인류는 모든 죄짐을 지고 있었고, 더 이상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 어두운 밤에 있었고, 사랑이 없었고, 온전하게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가장 먼 거리에 있었다. 그러므로 인류는 심연에 빠질, 즉 지식이 없이 그리고 사랑이 없이 영원한 저주를 받는 낮은 곳으로 이끄는 길을 걷는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다. 하나님과의 간격은 하나님의 계명과 완전히 반대되고 하나님의 질서에 위배되는 삶의 방식으로 나타났고, 완전히 하나님의 질서에 반대되었고, 가장 명백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가운데 사는 삶이었고, 그런 삶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반대인 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삶은 절대로 인간을 해방시키지 못하고, 사후에 축복받은 삶을 살게 할 수 없고, 영적인 죽음이 그의 결과이다. 영적인 죽음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저세상에서의 극심한 고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죄에 대한 속죄를 요구하고, 인간의 죄짐이 이미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커져, 존재들이 언젠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간격은 존재에게 힘이 없음과 무기력함과 어두움과 결국에는 자신의 입자가 굳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존재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소멸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상태인 영적인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존재가 소멸되는 일은 불가능하고, 그러므로 존재의 고통은 모든 개념을 초월하게 견딜 수 없고 끝이 없다. 영원한 신성이 이런 존재에게 긍휼을 베풀어, 영원한 사랑이 사람 안에 육신을 입고,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으로 인류의 죄짐을 자신이 짊어지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자신이 하나님께 속죄로 희생 제물을 바침으로써 인류의 죄에 대한 회개를 하면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했다. 그가 사람들에게 자유를 다시 주기 위해, 그들이 단지 죄가 없이 전적으로 순수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했다.

그러므로 그는 인류를 죄짐으로부터 구원했고, 모든 죄를 자신이 짊어졌고, 이 가운데 말할 수 없이 고통을 겪고, 영원한 신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영원한 신성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인류가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 갈 수 있도록, 인간을 위해 공의로운 댓가를 치르기 위해 희생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은 인간 예수의 희생제사를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간의 죄짐을 용서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을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문이 열렸다. 하나님은 인류를 죄와 죄짐으로부터 구원했고, 그들에게 이 땅의 삶의 목적을 달성할 마지막 기회를 제공했다. (1944년 10월 4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사람들이 영원한 본향에 접근하는 일을 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가장 큰 장애물은 죄였다. 왜냐하면 죄가 사람들의 힘과 의지를 빼앗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의지가 없이 바닥에 누워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게 되는 일은 죄의 결과였다. 왜냐하면 죄짐이 그들을 짓눌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짐을 그들에게서 넘겨받아, 짊어지고 십자가로 향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의 죄짐에 대한 속죄를 하기 위해서 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롭게 된 인류는 이제 그의 희생제사를 영접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또한 경멸할 수 있었다. 구속사역이 실제 모든 사람을 위해 완성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뜻과는 반대로 절대로 구속사역의 은혜를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하려는 소원이 없다면, 그들을 구속사역의 은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죄짐이 모든 무게로 사람들을 짓누르고, 그러면 그들은 불가피하게 심연에 빠지게 된다. 왜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이로써 그들은 그들의 무지 가운데 영원히 영원한 동안 고통을 당해야만 하고, 그들의 죄짐이 줄어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심지어 이 죄짐에 더하여 많은 이 땅의 죄를 첨가할 것이고, 그들이 은혜의 선물을 받아드릴 때, 그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그들의 죄에 공휼을 베풀어 그들에게 구세주를 보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

이를 믿는 믿음이 사람들이 지은 죄를 후회하게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휼에 자신을 굴복하게 만들 것이다. 즉 구속사역의 은혜가 이제 그에게서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의 의지력과 힘이 증가할 것이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대적자들의 권세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난처로 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공휼을 구하는 사람이 단지 죄의 용서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의 기도는 응답을 받을 것이고, 그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속죄.

B.D. No. 6513

1956년 3월 30일

내가 짊어진 인류의 죄는 말할 수 없게 무거웠다. 악한 행동은 그의 영향을 사람들에게 미쳐야만 했다. 너희가 스스로 너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죄 값을 치러야만 했다면, 너희는 측량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 한때 하나님을 거부한 죄 한가지가 이미 아주 커서 너희는 이 죄를 묶여 있는 상태나 또는 인간의 상태에서 속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졌고 모든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내가 감당했다. 나는 모든 것을 인간의 내 육체로 짊어졌고 내 육체가 아주 고통이 총만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너희의 죄를 속죄했다.

내 사랑이 너희들 돕게 했다. 모든 빛이 총만한 영적인 존재들과 나에게 신실하게 머문 모든 창조 된 원래의 존재들은 너희를 향한 같은 사랑으로 총만했다. 그러나 사랑은 어떤 것도 멸망을 받게 놔두지 않고 사랑은 어떤 것도 어둠과 위험과 고통 가운데 놔두지 않고 사랑이 큰 죄를 사해주고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제공했다. 사랑 자체가 빛과 사랑이 총만한 존재 안에 거하면서 이 땅에 임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제 일어나야 하는 일은 인간적인 형태로 일어나야만 했고 사랑이 인간의 겉형체를 입어야만 했다. 나 자신이 육신을 입어야만 했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 안에서 거했다. 그럴지라도 인간 예수는 죄가 없이 순수했고 내가 그 안에서 나를 나타낼 수 있었다.

인간 예수가 너희 죄를 속죄했다. 인간 예수가 거대한 인류의 죄 짐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 갔다.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비 인간적인 고난을 이야기할지라도 너희는 이 고난의 모든 깊이를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성품의 부족함이 이를 깨닫는

일을 막기 때문이다. 그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었고 그는 이미 오래 전에 이런 고난을 알고 있었다. 왜냐면 그는 내가 그 안에 거했던 내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모든 것을 알았고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았다. 그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혼은 떨고 요동했고 사랑을 통해 도달한 신성이 그에게 실제 힘을 주었지만 그러나 이 힘이 고난의 정도를 줄여주지 않았다.

자신의 이웃을 위해 고난 받기 원한 사람이 십자가를 졌다. 왜냐면 그가 내 대적자에 의해 깊은 곳에 묶여 있는 사람들의 측량할 수 없는 고난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는 대적자로부터 혼들을 구매하기 위해 희생제사를 드려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고 죄가 있는 자녀를 아버지 집으로 받아들이 수 없는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큰 죄짐이 속죄돼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내 자녀들을 나에게 돌아오게 만들기를 원했고 죄가 아주 컸기 때문에 희생제사도 특별하게 커야만 했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아주 큰 고통을 자신이 짊어 졌다. 그러므로 그를 제외한 어떤 사람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자신에게 임하게 했고 그는 의식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갔고 마지막에 가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

인류를 위한 이런 큰 공훈의 역사를 헤아려보는 일은 너희 사람들에게 아직 불가능하다. 그러나 너희는 항상 또 다시 그가 전적으로 죄가 없었다는 것과 너희를 위해 고통을 당했고 너희가 그의 구속사역이 없이는 절대로 깊은 곳에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 있었고 사랑이 인간 예수 안에 충만했다. 이런 사랑이 없이는 그는 절대로 이런 역사를 완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인간 예수 안에서 그의 가장 어려운 고난의 과정 가운데 조용하게 처신해야만 했다. 왜냐면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만 했기 때문이고 그 안의 신성은 고통을 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성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속죄가 없이는 죄를 용서해줄 수 없다.

너희 사람들이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너희는 언젠가 이 일의 모든 깊이로 헤아려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런 가장 큰 공훈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간 예수가 인간이 되는 일을 통해 너희의 영역에 거했다. 그러므로 높은 곳의 빛의 나라로부터 내려온 그의 혼은 가장 깊은 어두움을 보고 지옥의 권세들에게 공격을 당하며 끔찍하게 고통을 당했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는 단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혼의 고통을 견뎌야만 했다. 혼의 고통이 그의 고통을 천 배나 더 크게 했다. 그러나 그는 너희 사람들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주었다.

아멘

하나님은 속죄하지 않고 죄를 용서할 수 없다

B.D. No. 8864

1964년 10월 8일

내 사랑은 진실로 커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싶다. 왜냐면 내 사랑이 너희를 생성되게 했기 때문이다.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모든 죄에 속죄를 요구하는 공의를 피해버린다면, 내가 내 영원한 법칙을 어긴 것이고 나는 더 이상 온

전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한 사람이 너희 구원을 위해 값을 지불해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는 내 대적자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 대한 그의 권리를 부인할 생각이 없다. 만약에 한 사람이 사랑으로 그를 이기지 않았으면, 그래서 그가 더 이상 자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길 원하는 혼들을 묶어둘 능력이 없게 되지 않았으면, 그는 절대로 너희를 자유롭게 풀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면 큰 죄가 혼들을 내 대적자에 묶어 두었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 예수가 그의 구속사역을 통해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의 도움을 사용할지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지만 혼들을 그의 손에서 빼앗을 때까지 이 사슬을 풀어주지 않았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자유의지의 상태에서 인간 예수의 구속사역을 인정하고 사탄의 사슬로부터 구속을 영접할 것인지 결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는 싸우지 않고 자유의지로 자기를 깊은 곳까지 따랐던 자신에 속한 자들을 놓아주지 않는다. 이들은 그가 자유의지로 풀어주지 않는 그의 추종자들이고 그의 권세이다. 그러므로 아주 큰 사랑의 역사는 긍휼의 역사로써 단지 천사의 영만이 실행할 수 있었다. 왜냐면 이 땅에서는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랑을 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람에게 전혀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타락한 존재와 떨어진 거리는 너무 커서 그들은 사랑을 느낄 수 없었다.

그러므로 한때 그들이 자신들이 지었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길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불가능 했다. 사랑이 자신을 희생해야만 했고 그래서 스스로 인간 예수 안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그러므로 그는 끔찍한 고통과 고난을 사랑으로 자신이 짊어 졌다. 이 사랑 앞에 내 대적자가 무기력했고 그는 구속사역을 영접하는 혼들을 자유롭게 풀어줘야만 했다. 구속사역은 영접한 자들에게 그의 의지를 강하게 만들어 준다. 단지 이런 의지의 강화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 왜냐면 타락한 죄로 인해 의지가 아주 연약해졌고 어떤 혼도 자신을 가두고 있는 자에 대해 일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십자가의 길은 필요하다. 왜냐면 내 대적자는 이런 긍휼의 역사를 행할 수 있는 사랑의 권세와 능력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랑 앞에 대적자는 굴복해야만 했다. 왜냐면 사랑이 그의 미움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사랑이 그로부터 자유롭게 되길 원하는 모든 혼들을 데리고 갔고 그는 혼들을 붙잡을 수 없다.

왜냐면 혼들도 자신들의 큰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함으로 자신을 창조한 분에게 다시 돌아가려는 의지를 증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길 원했기 때문에 인간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기를 원했다. 자기의 타락한 형제들에 대한 인간 예수의 사랑이 그로 하여금 가장 큰 고난의 인생길을 가게 했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삶을 마치게 할 정도였다.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은 것은 마찬가지로 그의 측량할 수 없는 고난의 원인이다. 왜냐면 존재들은 한 때 나를 볼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나로부터 타락을 하게 된 원인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볼 수 있기 위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체를 선택했다. 그러나 이 형체도 사랑으로 가장 깊은 곳을 극복해야만 한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이런 극복에 속한 것이고 자신을 전적으로 영화 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형체가 이제 내 사랑을 전적으로 자신 안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사람의 혼들에게 만약에 그들이 스스로 사랑

을 통해 그와 하나가 됨으로써 나와 연합을 이룸으로써 서로 대면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된 것이다.

너의 인간들은 영원히 나를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나는 영원한 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남김 없이 소멸되게 했을 것이다. 빛의 전달자인 루시퍼도 이를 알고 있었다. 그럴지라도 그는 나를 보기를 갈망했다. 그는 가장 밝은 빛 가운데 있었고 그러므로 자기를 통해 창조된 자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창조자로 내세웠다. 존재들도 루시퍼가 시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를 따라 깊은 곳으로 타락했다.

이런 더 나은 깨달음에 대적한 죄로부터 단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 분만이 그로부터 자유롭게 되길 원하는 모든 혼들을 위해 너희 대적자에게 속죄의 값을 치를 수 있었다. 왜냐면 예수 안에 나 자신이 영원한 사랑으로서 거했다. 내가 나 자신을 인류의 죄를 위해 드림으로 내가 인간 예수의 볼 수 있는 형체 안에서 너희를 위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된 것이다.

동시에 인간 예수에 의해 내 공의를 위한 속죄가 이루어 졌다. 왜냐면 내가 스스로 내 영원한 질서의 법칙을 어기려고 하지 않으면, 어떤 죄도 속죄를 받지 않고 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이 이 죄를 용서해주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왜냐면 근본적으로는 나 자신이 구속사역을 완성한 것이다. 나는 단지 인간적인 형체를 사용하여 나 자신이 모든 충만함으로 그 안에 거했고 그러나 이 인간적인 형체가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그들이 자유의지로 따랐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같은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인류를 사들인 것이다.

아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

B.D. No. 9010

1965년 7월 7일

죄 사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너희가 너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너희 인간들에게 결정적인 의미가 있다. 너희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일은 너희가 이 죄로부터 속죄 받으려는 의지보다 먼저 있어야만 한다. 왜냐면 그러할 때 너희는 의식적으로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너희는 한번은 너희가 한때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해 죄를 지은 잘못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너희가 인간으로 이 땅에서 존재하게 된 이유인 너희의 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진지하게 소원해야만 한다. 너희가 이제 이 죄를 의식적으로 십자가 아래로 내려놓을 때 너희는 죄로부터 용서를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구세주가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를 당시에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단지 형식적으로 그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너희는 인간 예수가 너희를 위해 행한 것을 즉 너희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너희의 죄짐을 위해 하나님에게 속죄 재물을 드린 것과 이것이 없이는 너희가 절대로 빛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전적으로 의식해야만 한다.

이럴 때 비로소 영원하신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된다. 이럴 때 비로소 너희는 너희의 죄를 깨닫게 되고 너희 스스로 죄를 고백하게 되고 용서를 구한다. 이 것 만이 이 땅에서 너희가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사랑이 너희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 너희는 비로소 이 과제를 성취할 것이다. 왜냐면 사랑이 전적으로 없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그의 삶은 헛된 삶이다. 그는 본질적인 목적인 자신을 자신의 원초의 상태로 다시 바꾸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 왜냐면 그의 죄가 그에게 부담을 주고 만약에 그가 저세상에 갈지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세상에서도 그에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지 영접하지 않을지 자유롭게 결정하게 한다.

그러므로 항상 너희에게 빛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 빛에 감사하는 열린 심장과 귀를 가진 사람을 아주 찾기 힘들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의식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의 존재의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다. 단지 그들의 세상적인 육신에 안락함을 주는 것만을 갈망하면서 아무 염려 없이 산다.

그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원해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서서히 확실하게 올바른 깨달음에 도달했을 것이다. 시간이 별로 없다. 종말이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시간은 자꾸 줄어들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단지 아주 적은 사람들 만에게 구속사역의 의미에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왜냐면 구속사역은 거의 전세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속사역이 강조되는 지역에서도 생명력이 부족한 단지 형식적인 믿음을 찾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구속을 주게 하는 의식적으로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 구속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적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야만 함을 모르고 있다. 그들은 죄 용서받기 위해 단지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전적인 의식 가운데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구세주에게 헌신해야만 한다.

그럴 때 비로소 그에게 구속역사가 효과를 나타낸다. 사람들이 귀로만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러나 심장은 참여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원죄로부터 구속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항상 사람들에게 생명력 있게 역사하려고 하며 큰 구속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무엇보다 사랑하게 권면하는 일꾼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생명력 있게 믿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은 그의 죄로부터 구속을 받을 것이다. 사랑이 그들에게 빛을 주고 이 빛이 이제 항상 더욱 밝게 빛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의 큰 죄로부터 구속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 갈 길이 없음을 그리고 이 한 분 만이 큰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분명히 해야만 한다.

그는 이제 용서해주기 위해 제한 없이 축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 의식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요청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한때 너희가 인정하는 것을 거절해 깊은 곳으로 타락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여기에 큰

비밀이 들어 있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죄인으로 만든 큰 죄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이 죄를 구속했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 죄. 묶임.

B.D. No. 2059

1941년 9월 6일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은 죄이다. 왜냐하면 그가 사랑이 없는 곳에 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느님과 간의 간격이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모든 일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식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다시 말해 영적인 존재 자신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왜냐하면 존재가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모든 일을 통해 항상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빠지기 때문이다.

사람으로서 이런 상태가 이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적자의 권세가 항상 더 커지도록 역사하고, 그가 하나님의 대적자의 의지 아래 강요를 받게 역사하고, 그의 생각과 행동이 항상 하나님의 대적자가 원하는 대로, 즉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역사한다.

이런 일은 혼에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혼이 자신의 최종적인 해방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고, 혼이 묶인 상태를 영의 나라로 가지고 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단지 사랑만이 존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랑 없음이 존재를 묶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웃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랑의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이전에 하나님께 대항한 반역이 그에게 준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었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복된 존재로서 영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 단지 이 계명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사람이 하느님의 사랑의 교리를 어기는 일을 하거나, 이웃을 향한 사랑을 증명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죄를 지을 수 있다. 사람은 이웃을 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유익을 줘야 한다. 다시 말해 자신이 원하게 보일만한 모든 일을 이웃에게 해야 한다.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과의 연결이 이뤄진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사랑을 행하는 사람에게 내려와, 그에게 자신의 가까이에 거하기에 합당함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그에게 영적인 자유를 의미한다. 인간은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가까이에 거하는 일을 통해 인간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대적자의 힘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승자는 항상 사랑의 역사를 통해 영원한 사랑 자체와 연결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는 속박을 깨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그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강제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사랑의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랑의 계명은 끝없이 긴 기간 동안의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사랑의 계명은 동시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다리를 의미한다. 이타적인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그런 일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

고, 하나님과의 모든 간격을 극복하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요구를 성취하고, 또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상급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과, 다시 말해 자신의 이웃 사람들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여기고, 이웃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기 원하는 사람과, 하나님 자신이 연합하는 일이다.

영원한 축복은 단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행한 결과이다. 이와 반대로 저주도 마찬가지로 사랑 없음의 결과이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또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이고, 죄이다.

아멘

죄. 의지. 기도.

B.D. No. 3293

1944년 10월 14일

오 바르게 행하려는 의지를 가진 너희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좌절 **르** 하는 일로부터 너희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자신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너희의 의지가 나에게 향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미 너희의 생각에서 나를 제외시킨 것이고, 너희는 또한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다. 나의 법을 어기는 모든 일이, 내가 세운 모든 질서를 어기는 모든 일이 죄이다. 너희가 이제 나를 갈망한다면, 이로써 너희의 의지가 나에게 향하고, 나와 연합이 되려고 한다면, 너희는 나의 질서를 어기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의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의지를 수행할 능력이 없게 너희를 놔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죄를 진다면, 너희는 나의 대적자의 능력을 활용한 것이다. 너희는 이 전의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나의 대적자에게 향한 것이다.

아직 의지가 나에게 향해 있을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모든 나의 피조물들을 향한 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실제 나의 피조물을 시험해볼 수 있고, 나의 은혜가 그에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의 의지가 항상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을 그가 당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가 나에게 도달하려는 동안에는, 절대로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 그는 실제 유혹 가운데 연약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을 연약하게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타락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를 갈망하는 생각이 이미 그에게 유혹에 저항할 능력을 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너희 사람들은 항상 모든 유혹 가운데, 모든 혼의 고통과 위험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

너희의 심장이 나를 갈망한다면, 너희의 의지가 단지 나에게 향해 있다면, 모든 세상의 유혹이 너희에게 다가올 수 있고, 또는 질서를 어기라고 너희를 자극을 할 수 있지만, 나에게 능력을 구하는 긴밀한 한숨의 탄식이 너희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의지가 선하다면, 너희가 죄를 지어야만 한다는 말을 믿지 말라.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나의 대적자의 능력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더 이상 나에게 향하여 있지 않고, 나를 떠난 너희의 의지를 통해, 비로소 나의 대적자에게 능력을 준다. 죄는 나의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일이고, 나의 계명과 반대로 행하는 일이다. 죄는 건설하는 역사를 하지 않고, 미움과 사랑 없음에 근거를 둔, 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악한 것으로 깨달을 수 있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깨달을 수 있는 파괴의 역사를 일으키는 모든 일이다.

죄는 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을 의식적으로 수행하는 일이다. 너희는 이렇게 하도록 절대로 강요받지 않고, 너희의 자유의지가 너희가 이렇게 행하게 한 것이다. 너희 자유의지는 실제 아주 연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강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능력을 얻기 위해 나 자신을, 하나님의 구세주를 부른다면, 너희는 절대로 의지가 약하게 될 필요가 없다. 너희가 너희의 의지를 나에게 드린다면, 너희는 절대로 죄를 지을 필요가 없고, 나는 너희의 연약함을 해결하고, 너희는 항상 나의 보호아래 있다. 너희 스스로 죄에게 권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죄가 너희에 대한 어떠한 권세도 없다. 비록 너희의 의지가 선하다 할지라도 너희가 죄를 지어야만 한다는 말은 얼마나 오류인가!

의지의 연약함은 언제든지 해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이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의지를 나에게 향하게 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악한자가 그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는 타락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의지를 나의 의지 아래 두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때부터 나의 사랑의 돌봄을 받고, 나의 능력을 공급을 공급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죄는 나를 떠난다는 공개적인 고백이다. 선하게 되려고 추구하는 사람도 실제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죄를 짓는 순간에 자신의 의지를 악한 자에게 준 것이다. 그의 의지가 자유하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은혜와 더 강해진 의지와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는 나의 방해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대적자에게 자신을 드리는 동안에는, 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 자신이 나의 능력을 거부하고, 대적자로부터 능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는 나의 질서를 어기면서, 나의 사랑의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즉 계명을 어기면서 죄를 짓는다. 그러나 죄짓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의 은혜가 항상 제공되고, 그의 나를 갈망하는 의지가 그에게 이러한 능력이 공급되는 일을 보장한다. 내가 진지하게 선하게 머물려는 이 땅의 자녀의 추구를 도와주지 않으면서 어렵게 만들기를 원한다면, 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사랑이 방해할 수 있는데도,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이런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죄짓도록 하는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죄는 항상 나의 대적자의 역사이다. 반면에 나는 모든 피조물들을 죄로부터 보호해주기 원하고, 그들이 나에게 그들의 의지를 드린다면, 보호한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사람은 자유의지로 대적자의 권세에 자신을 드린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기도를 통해, 능력을 요구하는 일을 통해, 죄의 권세에 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의 깨달음이 높을수록, 그의 죄는 더 크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의 죄를 의식한 것이고, 이에 합당하게 또한 그의 죄가 크기 때문이다.

아멘

행하지 않은 죄. 후회. 저세상에서의 변화.

B.D. No. 4791

1949년 12월 3일

너희는 모든 행하지 않은 죄에 대해, 사용하지 않은 모든 기회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사용하지 않은 모든 기회를 알려주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단지

너희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는지 기억하고 이로써 이제 너희가 놓친 유익을 스스로 깨달을 것이고, 너희의 회개는 크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절대로 잊을 수 없고, 이로써 너희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너희의 죄에 대한 벌이기 때문이다. 이런 고통은 실제 공의한 벌로 간주할 수 있고, 너희는 이 죄를 단지 너희의 강박함에 대한 깊은 후회와 너희의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한 일에 대한 깊은 후회를 통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

이 고통은 너희가 저세상에서 이 땅의 사랑 없는 삶과는 반대로 살기 위해 노력할 때 줄어들 것이고, 너희가 이제 자신이 동인이 되어 너희처럼 고통을 받아야만 하고 모든 사랑의 역사가 도움이 되는 혼들에게 사랑을 행할 때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사랑의 힘을 느끼고 너희의 불의를 고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상태를 깨달을 수 있는 작은 빛의 불씨가 필요하다. 왜냐면 너희가 이런 희미한 깨달음의 빛을 가지고 있지 않는 동안에는, 너희가 아직 이 땅에서 놓친 일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너희 자신의 운명을 향상시키려는 자신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다른 위험 가운데 고통 당하는 혼에 대한 사랑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는 강박한 의지와 자기 사랑의 정도에 따라 오래 지속될 수 있고, 사랑이 먼저 깨어나야만 한다. 사랑이 깨어나는 일은 이 땅에서 사랑으로 그 혼을 생각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혼은 말할 수 없게 고통을 받는 많은 혼들이 거주하는 환경으로 인도되어 혼이 고통이 자신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통해 긍휼을 깨닫게 되고, 혼이 이제 자신을 증명해야만 한다. 혼이 단지 한번 도움을 주려는 의지를 가지면, 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이 흘러가고, 더 이상 꺼질 수 없는 작은 빛이 밝혀진다. 왜냐면 혼이 이제 자신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사랑으로 일하는 일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고 빛의 존재의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빛의 존재는 혼이 감당할 수 있게 변장을 하고 혼을 가르치고, 혼이 사랑을 행하도록 자극한다.

이런 상태에 도달한 혼은 자신이 놓친 일을 깨닫고, 혼의 후회는 크다. 그러나 도우려는 의지가 증가한다. 혼이 사랑을 더 많이 행할수록, 혼에게 사랑을 행할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고, 심장 안의 후회의 느낌이 약해진다. 왜냐면 혼이 이제 비록 자신이 이 땅에서 소홀히 한 일을 절대로 보충할 수 없음을 알고 있지만, 자신에게 아직 높은 곳으로 향할 기회를 준 하나님께 감사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혼은 사랑을 행할 수 있고 자신의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축복을 받는다.

아멘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하는 죄. 죄의 고백과 용서.

B.D. No. 5181

1951년 7월 31일

하나님의 질서를 조금이라도 어기는 일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힘을 잃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시 말해 전적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사는 일은 능력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질서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능력을 잃게 된다. 왜냐면 하나님의 질서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반대를 추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맞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하는 일은 전적으로 의식하는 가운데 생각이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

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불의를 깨닫는 상태에서 행하는 일이 죄이고, 인간이 죄를 지으려면 옳고 그름을 알고 그가 잘못으로 인정한 일을 자유로 행해야만 한다.

이런 정의가 중요하다. 왜냐면 죄의 용서를 위해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단지 느낄 수 있는 깊은 회개를 요구하고,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죄는 죄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용서받기 원하면, 죄의 고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 죄의 고백은 깊은 회개와 결합이 돼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 일은 단지 입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심장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하지 않고 인간이 제정한 법에 근거하여 사람이 죄로 정한 범죄는 실제 인간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죄에는 속하지 않는다. 왜냐면 하나님 자신이 그런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절대로 사람을 죄인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하는 일은 단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일은 절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할 수 없다. 반대로 사랑의 계명과 모순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일이 아니다. 왜냐면 사랑이 근본 법칙이고, 이런 근본법칙 위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항상 이런 근본법칙을 표준으로 삼으라.

사람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죄는 속죄를 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죄 용서를 받기 위해 죄를 죄로 깨닫고 혐오해야만 하고, 사람이 또한 무엇이 죄인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사랑을 어겼는 지, 언제 어겼는 지, 자신이 이웃에게 죄를 지었는 지, 언제 지었는 지를 알아야만 하고, 그는 이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야만 하고, 그에게 그의 피로 인해 용서 해주기를 간절하게 구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용서를 받을 것이고 자신의 죄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멘

죄는 사랑을 행하지 않는 일이다.

B.D. No. 6071

1954년 10월 6일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는 죄가 우세하게 돼야만 한다. 왜냐면 사랑에 반대되는 모든 일이 죄이기 때문이다. 죄는 사랑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모든 일이다. 사람들이 이제 더 적게 사랑의 삶을 살수록 사람들이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게 되고 그들은 죄를 짓고 세상에 죄를 가져온 자의 손에 자신을 넘긴다. 죄는 사랑없음에서 유래한 모든 불의이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영원한 사랑에 반항한다. 왜냐면 그는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의 자기 사랑은 그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도록 이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다. 그는 실제 자신 안에 사랑이 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은 하나님의 대적자에게서 물려 받은 잘못 된 방향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의 대적자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다. 왜냐면 그가 자신을 하나님 위에 두었고 이로써 타락했기 때문이다.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는 실제 넘어질 수 있다. 즉 그는

연약함으로 인해 대적자의 유혹에 굴복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이 항상 그를 반복해서 일어나게 할 것이고 자신의 불의를 선하게 만들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게 될 것이고 그는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의 성품 자체가 죄를 거부하고 사랑과 반대되는 의식적인 잘못에 저항하기 때문이다. 죄인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 그는 자신 안에 사랑이 타오르게 되면 그가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는 비로소 죄에서 돌아 서고 비로소 영원한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사람이 사랑없음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는 불의가 확산되고 사람들은 이웃을 희생시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이용할 것이고 소유 재산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 가운데 형제애가 더 이상 없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대적하거나 또는 은밀하게 대적할 것이다. 사람들이 사탄의 종이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여야 하고 자녀가 되어 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므로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죄가 흥왕하게 된다. 왜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스스로 심판의 날을 불러들인다. 왜냐면 모든 것이 질서에서 벗어나면 법에 따라 종말이 임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질서가 회복될 수 있게 되고 이 땅에 다시 사랑과 공의가 지배하게 된다.

아멘

죄가 도를 넘어서는 일.

B.D. No. 4853

1950년 3월 7일

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이 정욕과 죄 가운데 산다. 왜냐면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이 사탄의 말을 듣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사탄이 속삭이는 소리를 자원하여 따른다. 사람들은 연약하여 저항하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 간다.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죄가 유혹하는 어떤 일도 주저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들은 죄의 수렁에 빠져 있고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사람들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게 되고, 이 땅이 멸망받기에 합당하고, 사람들이 그들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잊고, 이로써 절벽 앞에 서있음을 알게 된다.

사탄이 사람들을 전적으로 자신의 권세 아래 두고 있고, 사람들은 그에게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를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행한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질식될 것이고, 죄 가운데 멸망을 당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기록된 대로 삶을 즐기는 가운데 그들의 종말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에게 부르짖는다: 너희 모두는 언젠가 너희가 생각한 것과 행동한 것과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너희 모두는 너희의 의지와 너희가 행한 일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죄에 빠지지 말라. 너희들을 순수하게 지키라. 악을 경멸하라. 이로써 죄가 너희의 멸망이 되지 않게 하고, 죄가 너희를 지옥으로 끌어들이지 않게 하라. 그러면 너희 안의 경고자를 침묵하게 만들지 말라. 모든 악한 생각과 모든 악한 행동에 대해 경고하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이 음성에 주의하고, 이 음성을 따르라. 죄를 경하게 여기지 말라. 너희가 언젠가 공의하고, 모든 죄를 심판할 분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라. 왜냐면 죄는 속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자극이 너희를 유혹하게 하지 말라. 육체에게 모든 갈망을 충족시켜 주지 말라. 왜냐면 육체가 너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기 때문이다. 너희를 깨끗하게 유지하라. 그러면 너희가 죄에 빠지고 죄를 경멸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눈 앞에 합격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사탄에게 저항하지 않으면, 너희를 유혹하는 사탄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자유롭게 하라. 죄는 너희에 대한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부터 너희를 보호해야 한다. 왜냐면 너희가 죄를 통해 너희를 나의 대적자에게 속하게 하고, 너희가 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너희에게 영원한 멸망을 의미한다.

아멘

영을 향한 죄.

B.D. No. 4053

1947년 5월 31일

사람들이 내가 그들에게 준 말씀을 진리로 깨달으면서도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을 때, 즉 땅에 있는 내 종들을 거부하거나 나의 말씀을 받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일은 영을 향한 죄로 간주되어야 한다. 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일은 특별한 은혜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기 때문에 인간의 혼에도 특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일은 영의 음성으로 주어지며, 인간의 영의 불씨와 연결되는 일은 나의 영이고, 최고의 영적 선이고 이해할 수 없는 가치의 은혜의 선물이고 감사로 받아야 하며 또한 그것을 내 선물로 깨닫고, 진실에 감동을 받고, 내용면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분에게

당연히 그런 사람은 나의 말씀을 무관심하게 받아들이고 그 내용에 대해 생각하고 그 내용을 향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내용을 자신의 지적 재산으로 만드는 것을 꺼리면 영에 대해 죄를 짓는다. 나 자신이 그에게 가까이 왔고 그는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문을 두 드렸고 입장을 요청했지만 그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말하지만 그는 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나는 그에게 양식과 포도주, 나의 살과 피를 바치고, 그는 그의 이 땅의 삶의 길을 위해 새 힘과 힘을 주는 것을 거부한다. 내가 한때 받아들여지지 않고 접근한 사람은 은혜가 그에게 다시 주어지기 전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싸움해야 할 것이다. 그는 나의 첫 번째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만찬에 다시는 쉽게 초대받지 못할 것이다.

영을 향한 죄는 아주 심각하다. 왜냐면 이런 죄가 완전히 깨달음이 없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게 될 수 있다. 왜냐면 그가 한번 그의 거부를 통해 빛을 끄려고 시도하면, 나 자신이 그의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빼앗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가 빛이 비추는 것을 감지하지만, 그를 밝게 해줄 길을 가지 않기 때문이고, 그의 옛 길에서 내가 그를 올바른 길로 이끌기 원하지만, 그가 옛 길을 가는 일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영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또한 나의 나라에서 온 계시의 내용을 깨달을 의무가 있다. 왜냐면 내가 진실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귀중한 내용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내용이 나에게서 왔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는 영적인 내용을 하나님의 선물로 평가해야만 한다. 그는 모든 기쁨으로 영적인 내용을 영접하고, 사방에 전해야만 한다. 이로써 스스로 자신 안에서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이웃사람이 또한 나의 계시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영적인 내용을 나의 선물로 받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그들이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내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이제 그들과 함께 있고, 나의 임재가 그들을 끊임없이 지도하고, 모든 위험 가운데 끊임없는 도움을 주고, 그들이 스스로 나를 향한 사랑을 통해 자신을 나에게 도달하게 하고, 그들이 이 땅의 목표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이 그들 자신을 빛의 존재로 형성할 정도의 은혜를 보장한다. 왜냐면 나의 말

씀이 그들에게 동시에 힘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을 거슬러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은 당연히 빈손이 된다.

아멘

성령을 거스르는 죄 "영을 거스르는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B.D. No. 4617

1949년 4월 18일

너희가 문자적인 의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이 너희에게 아주 어렵다. 그러므로 너희는 말씀의 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남긴 많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또 다시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는 교사로서 나를 요청해야 한다. 나는 너희를 진리로 인도한다. 즉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진리에 합당하게 설명할 수 있고 설명하기를 원한다.

사람 안의 영의 역사는 영원한 신성이 모든 각각의 피조물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드러나는 특징이고, 또한 하나님의 힘의 발산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일이다. 내가 이제 사람 안에서 내 영을 통해 역사하면, 나와 그 사람 사이의 연결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된다. 왜냐면 영원부터 그의 심장 안의 영의 불씨가 아버지의 영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고, 이제 내가 가까이 다가감으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즉 영의 불씨가 사람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 안의 내 영의 역사는 항상 온전함에 도달하는 길을 가는데 주는 도움을 의미할 것이고, 생각을 영의 나라로 향하게 하는 일이고, 혼이 나와 연합하도록 촉구하는 일이고, 이로써 영적으로 성장해나가는 일을 의미할 것이다. 영은 혼이 모든 생각에 기울여 물질에 대한 갈망을 극복하도록 도울 것이다. 영은 혼에게 혼의 존재 목적과 이전에 받았던 혼의 사명을 알려줄 것이다. 영은 혼에게 하나님의 모든 신적인 성품을 계시해줄 것이고, 선명하고 깊은 지식을 전해줄 것이다. 즉 영은 빛을 줄 것이다. 이 빛이 모든 광도로 비출 수 있게 되면, 비교할 수 없게 행복하게 하는 빛을 혼에게 비춘다.

그러므로 사람 안의 영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이다. 나 자신이 사람을 돌보고, 그에게 나의 영광에 대한 작은 개념을 준다. 그러므로 내 역사의 결과가 명백하게 나타날지 또는 생각을 통해 내면이 밝아질지에 관계없이, 사람이 내가 그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한다면, 내가 그에게 임재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은 항상 자원하여 나와 연결을 이루고, 그의 심장을 사랑으로 형성하는 일을 통해, 즉 심장을 영원한 신성을 모시기에 합당하게 만드는 일을 통해 이제 내면에서 영원한 신성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일을 통해 의지를 실행해 옮긴 것이다. 이런 증거가 있는 영의 역사는 나 자신을 증거하고, 따라서 어느 정도 믿음을 넘어서는 증거이다.

나의 존재와 나의 임재에 대한 증거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이제 확신을 얻은 사람이 타락을 불가능하게 되는 성장 수준에 거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왜냐면 진리를 깨닫는 깨달음이 타락하는 일을 거의 불가능하기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는 동안에는, 그가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빛을 어둡게 할 수 있다. 그가 영에게 대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고, 이로써 그가 새롭게 나를 거부하고, 자신이 이전에 타락한 일을 반복하면서 가장 거친 방법으로 멸망을 받을 수 있다.

그는 의식적으로 영의 활동을 막을 수 있고, 더 나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식을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로써 그는 완전히 의식적으로 불의를 저지르는 영적 퇴보를 쉽게 만든다. 그는 나의 임재에 대한 증거와 확신을 얻었지만 다시 나를 떠났다. 그러므로 그의 의지가 그가 이미 탈출했던 적에게 다시 붙잡혔고, 그는 적을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하지 않는다.

영을 통해 나와 나의 역사를 깨닫고, 그가 단지 이성을 통해 그에게 전해진 지혜들에 대한 내적인 확신을 얻고, 믿을 수 있게 되고, 이런 굳은 믿음으로 믿음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단지 영을 거슬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는 가장 풍성하게 내 은혜를 받고 또한 그 은혜를 사용하고, 이제 이 은혜가 효과가 없게 했고, 그러므로 그는 공허를 기대할 수 없다. 왜냐면 그가 스스로 무한한 사랑으로 그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 갔고 그의 눈에서 베일을 벗겨준 신성을 물리쳤기 때문이다.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왜냐면 그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자신을 달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가 내 영을 거부하면, 그는 또한 이와 함께 하나님의 구세주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즉 그가 믿을 수 있지만, 그가 더 이상 믿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지 않음으로 구속사역의 은혜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가 단지 도움을 구했다면, 하나님의 구세주가 그런 첫 번째 생각이 사라지게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전에는 빛이 충만한 영역에 거했고, 어둠 속으로 빠졌다. 그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진리를 좋아하지 않았다. 왜냐면 진리가 그를 구속하는 일을 의무로 만들고, 그 안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가 구속하는 일을 행하기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나의 영의 역사를 자신 안에서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드물게 일어나고, 이런 일이 나를 향한 공개적인 저항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일은 그가 다시 나에게 향하고 새롭게 나의 공허를 입는 은혜를 얻어야만 하기까지, 즉 내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기까지 끝없이 긴 기간 동안 하나님과 가장 먼 곳에서 보내야 하는 일을 의미한다.

이 죄는 은혜와 공허로 용서받을 수 없고, 모든 죄값을 치러야만 한다. 이런 죄가 돌이킬 수 없게 새로운 파문을 받게 한다. 즉 모든 창조물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게 만든다. 왜냐면 이런 타락은 이전의 영적인 존재의 타락보다 덜하지 않은 타락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람이 전적인 깨달음 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 영이 이미 그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 또한 빛 안에 거하는 사람이 나의 대적자로서 그에게 역사하는 자를 깨닫지만, 그를 따르고, 나를 새롭게 배반한다면, 그가 심각한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이다.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 일은 그가 죄짐을 벗을 수 없고, 그가 스스로 죄짐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가 영원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그가 최종적으로 나를 고백하기까지 단지 영원에 영원한 시간이 소요된다.

아멘

너희는 영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를 너희에게 말한다. 왜냐면 너희가 영을 대적하면, 너희가 내 역사를 깨닫고 그러나 의식적으로 이를 멀리하면, 너희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나와 연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영을 통해 나를 표현하는 나 자신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사람 안의 영의 역사는 내 사랑의 비추임의 증거이다.

너희가 이를 거부하면, 너희는 영을 대항해 죄를 짓는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전에 지었던, 내가 너희에게 볼 수 있는 내 임재의 증거를 준 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죄를 새롭게 범하기 때문이다. 이 죄는 너희가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영을 거부하면, 너희는 너희를 용서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사역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는 측량할 수 없는 고통의 과정인 창조물을 거치는 과정을 새롭게 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을 대적해 죄를 짓지 말라. 내 역사를 인정하라. 왜냐면 너희가 너희 안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영원한 내 아버지의 영이 자신을 나타냄을 느낄 것이다. 너희는 영이 영에게 말하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렇지라도 너희는 거부한다. 너희는 나 자신이 "너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영을 거슬리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라고 말한 것을 안다. 아버지의 음성을 깨닫고 이 음성이 울릴 때에 심장과 귀를 닫는 사람이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음성을 깨달았을지라도 자신의 거부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이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이다.

왜냐면 이 사람은 아직 그로 하여금 예수를 찾지 못하게 하는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절대로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대적하는 영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이고 이 영이 그로 하여금 거부하게 이끌고 그가 이 영에게 순종하기 때문이다. 영의 음성을 깨닫는 일은 내가 주는 은혜의 선물이다. 사람들은 이 은혜를 선물을 활용해야 한다.

왜냐면 영의 음성이 사람의 신장의 감동을 줄 수 있으면, 그가 이미 어느 정도 성장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단지 희귀하게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자신을 지나치게 한다. 왜냐면 이 역사가 그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다. 사람 안의 영의 불씨가 쉬지 않고 자신의 영원한 아버지의 영을 향해 추구한다. 그러나 내 영의 역사를 두고 비록 이에 관한 깨달음이 있을 지라도 저속한 동기로 싸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한때 죄를 지었던 것처럼 나를 대적해 죄를 짓는다. 이 죄는 한때 지은 죄보다 몇배로 크게 될 것이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는 너희 모두에게 이를 경고하고 피하게 해주기 원한다. 너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너희는 내 영이 역사하는지 언제 역사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내 영을 고백해야 한다. 너희가 멸망을 받고 다시 나와 연결될 때까지 다시 끝 없이 긴 기간 동안이 필요하게 되지 않게 너희는 영을 대적하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아멘

분결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보호하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계명이 주어지지 않았고, 단지 양심의 음성으로 너희 심장 안의 훈계와 경고를 주었다. 너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너희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계명이지만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마찬가지로 너희의 삶을 크거나 적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정한 최종적인 목표는 혼이 온전하게 되는 일이고, 사람이 이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해야만 하고, 온전하지 못한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한다.

혼은 육체의 주인이 되어야만 하고, 혼은 육체의 욕망을 자신에 맞게 조정해야 하고, 혼은 위를 추구해야만 하고, 따라서 이 땅의 재물보다 영적인 재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혼은 세상을 이겨야만 하고, 영의 나라를 추구해야만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사랑이다.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항상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소유물보다 영적인 재물에 대한 갈망을 더 많이 가질 것이다. 그럴지라도 그가 세상의 한가운데서 사는 동안에는, 그는 세상을 남김없이 극복하지는 못할 것이고, 이런 일은 그에게 죄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사다리의 마지막 계단을 오르는 데 단지 장애가 된다. 사람은 스스로 이 장애물을 극복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고, 그가 욕망과 죄짐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약점을 알고 이를 고려한다. 왜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버지는 혼에 해가 되지 않는 것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연약한 때가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관대할 것이고, 그의 연약함 때문에 그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죄를 짓는 것은 아니고, 그가 너무 많이 세상을 섬기면, 그가 단지 높은 곳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고, 그가 세상에 더 많이 속하게 될수록, 즉 자신의 몸을 너무 많이 충족시킬수록, 그후에 혼의 대한 작업은 더욱 강렬하게 시작돼야만 한다. 그러나 정도가 이제 말을 해준다. 왜냐면 세상에 대한 욕망이 영적인 역사보다 크게 되면, 사람이 스스로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고, 그에게 성장할 힘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이다.

(1947년 5월 14일) 그러나 세상의 소유물이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머무는 사람은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한다. 하나님은 모든 안건을 가지고 자신에게 나와 조언을 구하는 사람을 그의 몸과 혼이 위험에 처할 때, 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는 도움의 수단은 사랑이다. 사랑이 있는 곳에 죄가 없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생각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통제해야만 하고, 자신을 본능의 노예로 만들지 않아야 하고, 자신을 사랑을 행하도록 양육해야 한다. 왜냐면 사랑을 증거하는 모든 일은 고귀하고 선하고, 사랑이 없는 일은 쉽게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보고, 언제든지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의 생각을 인도하고, 그들이 죄에 빠지는 일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대한 심판관이 될 것이다.

아멘